



지난 4월 23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두 단체 관계자들이 행사를 소개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재만 부회장, 감덕규 본부장, 김명옥 음악총감독, 이서 회장, 조현영 부회장, 이수경 총무.

비영리단체로 선교의 최전선 향해 월드미션대, 비영리단체 온라인 과정 개설

기독교 정신의 사회 봉사에 관심이 있지만 구체적인 방법을 모르거나, 현재 사역 중이지만 더 활발한 사역을 꿈꾸는 이들에게 좋은 소식이다. 월드미션대학교가 휴먼애틀랜틱 인터내셔널과 함께 비영리단체(NPO)·비정부단체(NGO) 사역에 관한 온라인 과정을 개설한다.

온라인 과정이니만큼 각자의 상황에 맞게 언제 어디서나 수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월드미션대는 미주는 물론, 전세계에 흩어져 있는 한인 잠재 자원들이 비영리단체를 통해 선교의 최전선에 뛰어들길 기대하고 있다.

이번에 개설되는 과목은 비영리단체 사역의 선교적 이해와 실천, 모금 및 캠페인, 비영리단체 운영 및 홍보 마케팅, 국제개발사업에 대한 이해와 실천(국제기구와 글로벌 NGO의 개요와 펀드), 기업의 사회공헌 및 비영리단체의 연계 등 총 5 과목이며 각각 1학점이다. 비영리단체의 선교적 가치부터 모금과 운영까지 넓은 영역을 망라하고 있으며 임진기 사무총장(휴먼애틀랜틱), 이준우 교수(강남대 사회복지학), 김민아 차장(컴패션 코리아), 민준

호 팀장(대한적십자사 대외협력실), 임진호 부장(한국기술교육대 개도국기술이전연구소), 김도영 이사(한국비영리학회) 등 현장 전문가, 학술 전문가, 홍보 전문가들이 교수로 총동원된다. 이 과정을 통해 선교적 교회의 개념과 사명, 사역을 이해하고, 비영리단체 운영에 대한 이론과 실재를 배우며, 동시에 효과적 사역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이번 과정은 6월 11일부터 8월 19일까지 10주간 진행되며 학점당 250달러다. 접수 마감은 6월 1일이다. 10주간의 과정을 마치면 수료증이 발급된다. 월드미션대 측은 “선교적 교회와 공적 신학 개념으로 비영리단체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지만 교회의 전략적 선교를 이끌어 내는 데에는 어려움이 많다. 이 과정은 기독교 사역자들이 선교적 교회의 관점에서 비영리단체 사역을 통해 이 시대 전략적인 선교에 다가갈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 과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학교 홈페이지 www.wmu.edu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213-388-1000

미자립교회 돕기에 CTS - OC교협 하나돼

희망나눔콘서트, 원더걸스 선예 초청해 찬양과 간증

CTS 기독교 TV와 오렌지카운티 기독교교회협의회(OC교협)가 미자립교회 돕기에 뜻을 모은다. 미자립교회 돕기 기금을 마련하고자 두 단체는 오는 5월 19일(토) 오후 7시 미주비전교회(담임 이서 목사, 2536 W. Woodland Dr. Anaheim CA 92801)에서 희망나눔콘서트를 연다. 이 콘서트는 무료이며 현금 시간이 있다.

CTS는 이미 과거 7번의 희망나눔콘서트를 통해 노숙자, 장애인, 중독자를 섬기는 선교단체들에 그 수익금을 기부해 왔다. 2015년에는 네팔 지진 피해자들을 돕기도 했다. 올해도 희망나눔콘서트를 준비하는 가운데 CTS는 오렌지카운티 지역 미자립교회에 눈을 돌리게 됐다. 감덕규 본부장은 “CTS가 그동안 교회로부터 받은 사랑을 돌려줄 수 있어 감사하다”면서 “이를 위해 OC교협에 협력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이번 콘서트에는 원더걸스의 멤버였던 선예와 함께 CTS헌신합창단, CTS여성합창단, CTS아이드림

콰이어, CTS 스트링 챔버 오케스트라가 출연한다. 이번 행사를 총괄 진행하는 김명옥 음악총감독은 “선예씨 본인도 선교사의 아내이기에 금번 행사가 미자립교회를 돕는다고 하니 흔쾌히 초대에 응해 주었다. 주요 출연자들 대부분이 재능 기부 형식으로 이번 콘서트에 함께 한다”고 설명했다.

OC교협은 CTS의 제안을 크게 환영하며 한 뜻이 됐다. OC교협은 이서 회장이 취임하면서부터 미자립교회 돕기에 주목해 왔다. 이 회장은 미자립교회를 일시적으로 돕는 것을 지양하고 다양한 컨퍼런스와 1대 1 멘토링, 연합 선교 등 다양한 방법을 구상하고 있던 차였다. 이 회장은 “이번 콘서트를 통해 미자립교회를 후원하되, 이것이 일회성 이벤트로 끝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일단 미자립교회 가운데 비전과 열정이 있는 교회를 선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첫 걸음이다. 그리고 이 교회들에, CTS는 콘서트 수익금을 전달하고 OC교협은 목회자 멘토

링 및 목회적 협력을 제공한다. 이 교회들은 CTS와 OC교협이 함께 선정한다. 박재만 부회장은 “그런 점에서 이번 콘서트는 OC 지역 교회들의 협력과 상생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첫 단추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현영 부회장은 “OC교협은 최근에도 미자립교회 목회자를 초청해 후원금을 전달하고 간증을 듣는 등, 미자립교회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 왔다”면서 “이런 실천이 점점 구체적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에 무대에 설 선예는 원더걸스의 보컬이자 리더였다. 인기 절정을 달릴 때, 5살 연상의 캐나다 교포인 제임스 박 선교사를 만나 결혼했다. 둘은 해외 선교 활동을 함께 하며 가까워졌고, 특히 아이티 지진 현장 봉사를 함께 하며 사랑을 키웠다고 한다. 선예는 현재 두 딸을 키우는 어머니이다. 그는 모든 연에게 활동을 중단했지만 간증과 찬양 사역으로 하나님을 전하는 일을 계속하고 있다.

김준형 기자

라구나힐스교회 장학생 모집

라구나힐스연합감리교회(림학준 목사)가 2018년 장학생을 모집한다. 이 교회 장학위원회에서는 ‘함께 비전을 보고 함께 꿈을 꾸는’ 표어 아래 다음 세대를 이끌어 갈 인재 가운데 일반 장학생 5명,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 장학생 1명, 몽골선교회 현지 신학생 3명을 선발한다.

신청 기간은 5월 25일부터 6월 25일까지다. 일반 장학 지원 자격은 현재 오렌지카운티에 거주하는 학생(또는 부모가 거주)으로 대학이나 대학원에 재학, 또는 2018년 가을학기에 대학 입학이 확정된 시니

어들이다. 지원서는 교회 홈페이지(www.lagunaumc.org)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 장학생들에게는 1인당 2,000달러가 수여된다.

한편, 교회는 장학금 모금을 위한 골프대회를 오는 5월 8일 오전 11시 도브캐년컨트리클럽에서 개최한다. 출신원 상에는 터스틴 현대에서 제너시스 80을 후원하며 장학기금을 위한 다양한 후원자와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다. 수익금은 전액 장학금으로 사용된다.

문의) lagunakumc@gmail.com
 949-380-7777

**미용자격증
 미용고급기술**
 김인태
 한국국가대표 아시아 챔피언 출신 강사 직강
QCA Beauty College
T.213-232-3837

그린카피어
 Green M. Wild IMAGE SYSTEMS
 Office and Industry Technology Solutions
 Lease/Rent/Sale/Repair/Toner/Maintenance
 컬러복사/칼라프린트/칼라스캔/팩스/네트워크
 교회 및 자선, 비영리단체는 특별할인
 greenmwild@gmail.com
 TEL: 213 705 7778
bizhub
 KONICA MINOLTA

ASE CERTIFIED LA Auto Tech
 믿고 맡겨 주시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Warranty for All Work Performed

- Brake Service
- Tune-Ups
- Computer Diagnostic
- 전기계통
- 10K Service
- A/C Service

• 월~금 : 8AM~6PM, 토 8AM~4PM • 3200 W. Olympic Blvd., LA, CA 90006
T. (323) 735-3180

교회 창립 6주년 감사예배 및 임직식

남가주 살롬교회 창립 6주년을 맞아 임직자를 세우며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 **일시** : 2018년 5월 6일 주일 오전 11시(3부 예배 시)
- **장소** : 남가주 살롬교회 본당
 (20050 S. Vermont Ave., Torrance, CA 90502 TEL: 310-787-1004)
- **임직자**
 장로 장립 : 박진수, 배 훈
 장로 취임 : 이상필, 김기수
 안수집사 안수 : 김규섭, 김성수, 김창영, 서기현, 최장문
 안수집사 취임 : 김명도, 김승환, 유철수, 홍용기
 권사 임직 : 김계숙, 김길자, 김장미, 김청자, 김자열, 노용숙, 박명순, 이광자, 이경희, 이민디, 이임천, 이혜경, 이혜성, 이춘지, 유영춘, 조영순, 전영주, 황인숙

남가주 살롬교회

● 한인기독교상담소 칼럼

훈육과 부모역할

(DISCIPLINE)



강미라 상담원
한인기독교상담소

저녁 식사준비를 위해 급하게 사야 할 물건이 있어 상점에 들렀다. 그런데, 계산대 앞에서 소리 지르고 울면서 엄마랑 실랑이하는 3~4세 아이가 눈에 들어왔다. 엄마에게 초콜릿을 사달라고 떼를 부리는 듯싶었다. 주위 모든 사람의 시선을 받은 엄마는 당황해하며, 얼른 초콜릿값을 지급하고, 아이 손을 이끌고 자리를 떠났다. 위와 비슷한 상황들은 상점뿐 아니라 식당이나 공원, 놀이터 등 다른 공공장소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일 것이다. 사람들이 많이 모인 장소에 아랑곳하지 않고 소란케 해서 주위 사람들의 인상을 찌푸리게 만들거나, 엄마를 난처하게 만들어 원하는 것을 얻는 아이들은 그저 '고집이 센 아이'라고 넘기면 될까? 이 고집스러움이 나이가 들어가면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것일까? 성경에서도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잠22:6)는 말씀이 있다. 이것은 부모로서 자녀 훈육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다. 그렇다면 훈육이란 무엇인가?

대강이 줄거나 자녀의 수가 적은 탓에 아이에 대한 지나친 관심으로 과잉보호의 경향을 보이며, 차별이하는 가정들이 늘어감에 따라 아이들의 양육은 보모나 다른 양육기관에 맡기는 시대가 되고 있다. 사실 육아기관에서 아무리 좋은 교육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가정에서 일관되고 연관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없기에 가정에서의 훈육은 정말 중요한 것이다. 그러므로, 자녀에 대한 첫 번째 훈육자는 바로 '부모'이다.

그렇다면 긍정적인 훈육을 위해서 부모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첫째, 아이의 발달 단계에 따라 훈육을 해야 한다. 만 1세까지는 절대적 의존시기이기 때문에 아이에게 절대적인 보호와 위안이 필요하며, 만 1세에서 2세가 되면 자기 통제가 조금씩 되기 시작할 때 훈육을 시작하면 좋다. 둘째, 일관성 있는 태도로 훈육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아이가 똑같은 일을 했을 때 부모의 기준에 따라 아이를 훈육하게 되면, 어느 기준에 맞추어야 할지 아이가 혼란스러워지기 때문에 부모는 일관성 있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좋다. 셋째, 애착으로 엄마와의 신뢰를 먼저 형성한 후에 훈육해야 한다. 엄마와의 관계에 기본적인 신뢰가 없으면, 아이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눈치를 보게 된다. 넷째, 결과보다는 과정에 대해 칭찬을 해주어야 한다. 비록 결과가 만족할 만하지 못할지라도 노력하는 과정의 아이를 격려해주며

칭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다섯째, 합리적인 말로 훈육해야 한다. 아이에게 합리적인 말로 설명해 주어야 아이는 자기 내부의 목소리를 발달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여섯째, 부모는 모델링 역할을 해야 한다. 부모는 아이가 보고 배울 수 있도록 스스로 책임감을 느끼고 행동을 보이는 모델링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이들은 부모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일상의 모든 것을 부모 하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자녀교육을 위해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물어야 한다. "또 아버지야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엡6:4)는 말씀이 있다. 이는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 자녀의 마음에 분노나 노여움을 쌓이게 해서는 안 되며 하나님이 그러셨듯이 오히려 사랑스럽게 아이들의 잘못을 바로잡아 줘야 한다는 뜻이다. 자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자녀를 잘 양육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가족을 주시고, 풍성한 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 현명한 훈육의 방법이 될 것이다.

자녀의 훈육에 있어서 가정에서 부모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 방법들을 나열해 보았다. 하지만 이 방법들이 생각처럼 잘 되지 않을 수 있다. 부모 자신의 갈등이나 개인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바람직한 훈육을 하기 어렵다면, 반드시 상담소의 문을 두드리기 바란다. 왜냐하면, 부모 자신이 좋은 훈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고, 스트레스가 많은 등 먼저 다루어야 하는 이슈들이 있다면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결국 자녀를 더 잘 양육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비록 자녀훈육이 쉽지 않은 부모의 역할이지만 사랑하는 자녀를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의미를 명심하기를 바란다.
문의) 한인기독교상담소(kaccla.net) 전화) 213-738-6930 (LA) 657-529-1133 (OC)



강태광 목사가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하나님 백성은 행복해야”

LA에서 울려 퍼진 행복 설계사의 행복 메시지

지난 20일 밤 LA 한인타운에 있는 갈보리믿음교회(강진웅 목사)에서 행복설계사 강태광 목사가 행복 메시지를 전했다. 강 목사는 '행복한 인생비결'이라는 메시지에서 하나님 백성들이 행복하게 살아야함을 강조했다. 아울러 행복을 위해 필요한 지혜들을 나누었다. 주제도 행복이었고, 메시지를 듣는 청중도 행복했고, 메시지를 전하는 강 목사도 행복해 보였다. 그야말로 행복한 밤이었다.

강 목사는 "이 시대의 교회들이 행복하지 못한 것이 하나님의 아픔이다. 행복한 나라 천국 시민인 성도는 행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교회가 행복을 잃어버렸다. 행복한 교회가 그리 많지 않다. 천국의 지점인 교회가 본점인 천국처럼 행복해야 한다. 행복을 잃어버린 교회가 행복을 회복하게 하는 것이 행복설계사로서 저의 역할"이라고 했다.

강 목사는 목회자로 살아온 30년의 세월을 정리하면서 행복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었다. 강 목사는 목회자로 살아온 30년의 세월이 불행한 것도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행복한 세월이라고 말할 수도 없었다. "정말 아쉬운 것은 성도들의 행복한 신앙생활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지 못했습니다. 좋은 지도자는 구성원의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행복에 성공한 공동체에는 구성원의 행복을 추구한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활동 계획을 묻자 "우선 제가 행복하려고 한다. 그리고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목표이다. 또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교회와 기업에서 행복 세미나를 통해서 행복학을 강의할 예정이다. 때가 되면 행복학교를 열어 행복 메시지를 전하려 한다"고 밝혔다. 그는 5월에는 지역 교회에서 행복 세미나를 인도하고, 7월 초순에는 목회자들을 위한 행복 세미나를 준비하고, 6월 7월경에 동남부 지역 교회들에서 행복 세미나를 인도할 계획을 갖고 있다.



김준식 목사 PCA 서북노회장 추대

지난 4월 9일 새크라멘토 크로스포인트교회에서 열린 미국장로회(PCA) 서북노회 제52회 봄 노회에서 김준식 목사(남가주살롬교회 담임)가 신임노회장에 추대됐다.

하루에 신약 모두 읽어요

오는 5월 28일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까지 하루종일 신약 성경을 모두 읽는 '1일 신약성경통독집회'가 열린다.

장소는 LA 한인타운에 있는 헐리웃순장로교회(담임 김동원 목사, 1101 S. Elden Ave. Los Angeles CA 90006)이다.

교역자, 선교사, 신학생, 평신도 등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라면 누구라도 참가할 수 있다. 참가비는 없으며 점심, 저녁 식사와 간식이 제공된다.
문의) 213-268-3589

오바마케어 승인 프로그램

크리스천 헬스케어

* 연중 아무때나 가입이 가능.
* 골드 프로그램은 본인부담금(\$500)을 지불하지 않음

미주최대 의료협동조합 www.chman.org **714.738.1234**

ACCREDITED CHARITY

bbb.org

www.saseducation.weebly.com

실무 10년의 노하우

SAS 인가컨설팅, Inc

대표 Paul Kim, Ph. D
Tel : (213)531-7215, (909)993-3028
2975 Wilshire Blvd, Suite B01, Los Angeles, CA 90010

- 직업전문대학인가(ACCSC)
- 신학교 인가(TRACS, ATS)
- BPPE 신규 및 재승인
- 어학원/온라인 프로그램

summitus37@gmail.com

창립 12주년 기념헌당예배 및 임직식

창립 12주년을 맞아 임직자를 세우며 교회당을 구입하고 헌당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신실하게 예수님만 전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헌당축제

4/27(목)

7:30pm

강준민 목사
(사상평안교회)

4/28(금)

7:00pm

한기홍 목사
(은혜한인교회)

헌당예배 및 임직식

4/29(주)

4:00pm

박희민 원로목사
(나상영락교회)

장로취임 서영완
장로임직 정한삼
안수집사취임 강이모, 이문형
안수집사임직 이한규
권사취임 김제인, 이자경
권사임직 김소나, 김영희, 김한경, 김혜현
 서은영, 오경숙, 이경연, 이예스더
 전은주, 정미정, 정민영

새생명오이스스교회

NEW LIFE OASIS CHURCH

323.730.7000
1041 S. Oxford Ave.
Los Angeles, CA 90006
www.newlifoasis.org



성폭력과 데이트 폭력에 대한 교육에 참석한 한인 목회자 부부

성폭력 데이트 폭력 어떻게 예방하나

한인가정상담소-아버지학교 협력하기로

한인가정상담소(소장 카니 정 조)와 미주 두란노 아버지학교(본부장 구정훈)가 지난 23일 한인 기독교 목회자 부부 40여 명을 대상으로 성폭력과 데이트 폭력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참석자들은 성폭력과 데이트 폭력의 정의와 패턴 등에 대해 배우고, 한인사회에서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들을 논의했다. 앞으로도

한인가정상담소와 두란노 아버지 학교는 건강한 한인사회, 한인가정을 만들어 가는 일에 동역하기로 했다. 한인가정상담소 카니 정 조 소장은 "성폭력이나 가정폭력 피해자 중 상당수는 한인가정상담소와 같은 에이전시를 찾아오기 전에 종교계 관계자들이나 지인들에게 도움을 청한다. 이에 한인가정상담소는 한인 목회자들과 교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행사들을 개최해 오고 있으며,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미주 두란노 부부학교가 5월 4일부터 6일까지 열릴 예정이다. 부부학교는 결혼의 성경적 원리와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깨닫게 하는 커리큘럼을 통해 건강한 가정을 세우는 학교다.

조종곤 목사 연목회장 취임

오는 29일 이취임식 거행

남가주연세목회교회(연목회) 회장 이취임식이 4월 29일(주일) 오후 4시 30분 사우스베이 선교교회(조종 조종곤 신임회장)에서 열린다.



제17대 연목회(회장 김기동 목사)



김기동 전임회장

사는 작년 어려운 이웃과 타민족들을 돕기 위한 연세 사랑의 나눔 콘서트와 사랑의 컵라면 나눔 행사를 열어 큰 호응을 받았다. 많은 동문과 교회, 단체의 후원을 받아 2차에 걸쳐 104개 단체와 700여 개인에게 총 4279개 라면 상자를 나누었다.

이번에 선출된 조종곤 회장은 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에서 수학했으며 미주성결교회 총회장을 역임했다.

제17대 연목회(회장 김기동 목사의) 총무 714-353-8501 문의)



전문가들이 치매 관련 포럼에서 발표하고 있다.

그날 기억이 사라진다면?

소망, 제6회 소망 포럼 성황리에

소망소사이어티(이사장 유분자)는 4월 21일(토) 오전 10시부터 LA 동양선교교회에서 제 6회 소망 포럼을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봉사자, 참가자 등 약 250명이 참석한 이번 포럼의 주제는 '어려운, 어떻게 대처할 것입니까? 기억이 사라지는 그날, 치매였으며, 소망소사이어티에서는 LA 지역에서 처음 개최하는 치매 관련 포럼이었다.

얼바인주립대 의과대학의 부교수이자, 알츠하이머 오렌지카운티 협회 이사인 트린 박사와 엘레이 알츠하이머협회 엔지 에 과장, 카이론 토탈의 김에린 사회복지사가 연사로 나선 이번 포럼에서 참가자들은 오전 10시부터 30분 동안은 관련 업체들에서 마련한 부스를 돌아보며 필요한 정보를 얻었으며 소망의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손유희를

하며 뇌를 깨우는 시간을 가졌다.

소망소사이어티 유분자 이사장의 환영사에 이어 등단한 트린 박사는 치매 증상이 왜 생기게 되는지, 어떤 질병들이 치매 증상을 유발하는지, 이러한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으며, 엔지 에 과장은 치매 환자나 가족들이 빈곤이나 문화적 장벽, 치매에 대한 부정적 시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해야 할 일들에 대해 이야기 하였다. 마지막 연사로 나선 김에린 사회복지사는 치매환자 간병인들이 받는 스트레스에 대해 이야기하였는데 치매 환자를 위해 간병인들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설명하면서 특히 간병인들이 스스로를 잘 돌보아야 함을 강조하였다.



개혁장로회 한미연합총회 목사안수식이 개최됐다.

개혁장로회 한미연합총회 목사 안수식

개혁장로회 한미연합총회 목사 안수식이 지난 4월 23일 나눔과섬김의교회(엘리아 김 담임목사)에서 거행됐다. 이 안수식에서는 김영일, 서정일, 연병희 등 3명이 목사로 임직했다.

이들은 미주장신대학교, 에반겔리아대학교 등에서 신학을 공부한 후, 개혁장로회가 요구하는 목사 임직 심사를 무사히 통과하고 안수 받았다. 안수식은 교단 총무 엘리아 김 목사의 사회로 시작됐으며 주재

임 총회장이 '정결한 처녀'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 샘 신 남가주목사 회장 등이 축사했다.

한편, 안수식에 앞서서 LA 지역회가 개최돼 지역회의 다양한 안건과 현안을 다루었다.

· 이번에는 무슨 차로 할까? · 요즘 스페셜이 있는 차가 무얼까?
· 자동차 구입할까? · 리스 할까? · 내가 용자가 될까?
· 어떤 해결을 한 달에 남려드릴까요?
· 친화 주세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천천히 다 둘러보시고 오세요~

당신의 마지막 카드
16년 경력의 자동차 판매 전문가, 철저 정

현대 HYUNDAI
Pueño Hills Hyundai

찰리 정 (FLEET MANAGER) | 213-276-8959 | email: usajyk@gmail.com

문/사/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chdailya@gmail.com

J.C Superstar 뮤지컬 단원모집

대상 : 초, 중, 고, 대

고문위원 : 코너스톤 교회 이종용 목사
자문위원 : SBS 생활의 달인, 꾸러기 탐구생활 이상호PD

아이비 유학 Torrance / Irvine / LA shelbykwon65@gmail.com
T. (949) 329-8222, (949) 864-9162

CARAVAN CANOPY Division of Faith

교회 이동 디스플레이 및 디자인 전문

카라반캐노피는 대형프린팅 분야에서 18년의 전문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안 수정, 로고 제작, 한글 캘리그래피 디자인 등 다양한 서비스가 가능하며 고성능 프린트 작업으로 최고의 만족도를 약속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모든 디스플레이 제작, 맞춤형 서비스

- 현수막 | 천막
- 접이식 배너 | 디스플레이
- 프로모션 상품
- 디자인서비스

VINYL BANNERS
2' X 5' with grommets : \$25 Plus tax if applicable
4' X 5' with grommets : \$50 Plus tax if applicable

MESH/POLY FABRIC BANNERS
2' X 5' with grommets : \$35 Plus tax if applicable
4' X 5' with grommets : \$70 Plus tax if applicable

플래그, X 배너 거치대, 미디어벽, 벽걸이 포스터, 롤업배너, 현수막

예천교회 Easter SUNDAY 예수, 부활하셨네 THE IS RISEN 부활절감사예배 2018.04.01

여름성경학교 Vacation Bible School 6/12-6/17 9:00 AM-4:00 PM 오렌지 성경교회 유치부 & 유년부

14600 Alondra Blvd, La Mirada, CA 90638 | T. 877.922.6679 | 한국어. 714.367.3046 www.caravancanopy.com

<선교 부흥을 회복하라 - 62>

쿠르드 형제 하비브를 그리다

필자는 2007년도부터 터키 선교를 해오고 있다. 매년 한두 차례 그 땅을 밟으면서 많은 친구들을 사귀고 만나고 있다. 선교 사역자들에게는 입양종족이 있다. 미전도종족 중에 특별히 자식을 입양하듯이 선교 사역자들도 한 종족 이상씩을 가슴에 품고 그 종족을 위하여 날마다 기도하고 그 종족의 복음화를 위해 애쓰는 것을 종족 입양이라 한다.



이상훈 목사
주비전교회 담임

필자의 입양종족은 쿠르드 민족이다. 전 세계 4천만 명이나 되는 자생민족임에도 자기들의 영토가 없다. 그들이 살던 땅이 세계 1차, 2차 대전을 지나면서 다른 나라들이 저마다 선을 그어 영토를 만들어 내면서 쿠르드 민족의 지역이 여러 나라로 나뉘어져 버렸다. 그래서 눈물의 민족이다. 터키 안에서 쿠르드 민족은 남동부 지역을 차지하여 시리아와 이라크의 국경 지역에 몰려 산다.

으로 가끔씩 연락이 되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연락이 안되고 소식이 끊어진 것이다. 그가 있던 지역이 IS와 쿠르드 민병대가 전쟁하는 지역이라서 걱정이 되었다. 지난 1월 터키 사역을 할 기회가 되어 하비브를 찾기 위해 바트만으로 갔다.

그런데 지난 3, 4년 만에 바트만의 지형 지물이 다 바뀌어졌다. 예전에는 개발이 안된 공터도 많고, 허술한 판자집 촌동네가 꽤 많았다. 그런데 그 비었던 땅과 판자집이었던 곳들이 다 허물어지고 그 위에 5-7층 높이의 아파트들이 대거 세워졌다. 바트만으로 몰려 든 시리아 난민들이 십수만 명이라 한다. 그들을 위한 아파트를 세우는 것이다. 하비브가 살던 동네도 없어졌고 꼭 직했던 그의 집도 찾을 길이 없었다. 거리 곳곳마다에는 시리아 난민들이 쉽게 눈에 띄는 정도로 많았다.

나는 터키를 가면 주로 남동부 지역의 쿠르드 지역에서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한다. 2011년도에 바트만이란 도시에서 만난 청년, 하비브를 그리다. 작은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내려 그 땅을 정탐하다가 만난 30대 청년이다. 앙카라에서 이슬람 이맘이 되기 위한 대학교 출신이다. 독학으로 영어와 아랍어, 투르크어 그리고 물론 쿠르드어까지 섭렵한 친구다. 나는 그가 그리스도인이 되면 하나님을 바울처럼 사용하실 것을 굳게 믿는다.

필자가 터키를 좋아하는 이유가 있다. 그 주변 나라들 중 난민을 가장 많이 받아 주는 나라가 터키다. 터키의 국민성은 긍휼의 마음이다. 난민들을 긍휼의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돌본다. 자기들이 다소 불편하고 손해볼 것 같아도 나라 잃고 쫓겨온 난민들을 측은히 여겨 그들과 함께 살더라도 그것을 기뻐하는 민족이다.

터키는 복 받을 자격을 갖추어 가는 나라다. 점점 그리스도인의 수가 증가되고 있고, 또한 이란, 시리아, 아프간 등지의 난민들이 예배 드리는 난민교회가 수백 곳에 세워져 있다.

그와 교제하면서 그의 집을 갔다. 그의 부모, 결혼한 남동생 가족, 그리고 자기 형제 등 대가족이 큰 집에서 함께 사는 가정이었다. 가족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그들을 일일이 안수기도도 하면서 가정에서 전도를 하였다. 마지막 헤어질 때, 그 친구는 아직 자기는 무슬림이라고, 이슬람을 버릴 수 없다고 했다. 그러나 다음에 내가 다시 오면 그때 예수를 믿겠다고 했다.

그리고 몇 년간 이메일과 카톡

<다음 호에 계속>

● 섬기고 나누는 월드쉐어 USA 강태광 목사

행복한 ‘7분 극장’의 주인공들



강태광 목사
월드쉐어 USA

에일대학교 연구팀이 병원청소부들을 대상으로 의식조사를 했습니다. 연구팀은 이 조사를 통해서 청소를 따분하고 의미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 청소부들에 비해 청소하는 일이 의미를 부여하고 흥미를 느낀 직원들이 환자들 및 다른 직원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고 하는 일에 능률도 훨씬 높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또 자신들의 일에서 흥미와 의미를 발견한 사람들은 직업의 만족도가 대단히 높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자신들의 직업에 만족하지 못하는 의사들보다도 자신의 직업에 만족하는 병원 청소부들이 훨씬 더 행복했다고 합니다.

한 청소 회사가 하버드대학교 경영대학원, 중국의 칭화대학, 일본의 와세다대학 등의 세계적으로 유수한 대학들과 세계 언론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일본의 고속기차 신칸센을 청소하는 텡세이(Tesse)라는 회사의 이야기입니다. 텡세이가 신칸센을 청소하는 시간은 7분입니다. 종착역에 도착한 신칸센이 다시 출발하기까지 청소할 시간이 총 7분입니다. 이 7분 동안에 그들은 다음 승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혼신의 힘을 다해 청소합니다. 참문너머로 승차할 승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텡세이 직원들이 신칸센을 청소하는 풍경을 7분 극장이라고 부릅니다.

텡세이 ‘7분 극장’이 학계와 언론의 주목을 받는 이유는 행복한 청소부들 때문입니다. 누가 봐도 3D업종인 기차청소를 하면서 그들은 자긍심과 만족감을 가지고 행복해 함

니다. 텡세이 직원들은 직업과 직장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나 텡세이가 처음부터 이런 회사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직률 높고, 인기가 별로 없는 직장이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빨리 떠나고 싶은 회사였고, 힘든 업무로 악명 높은 전형적인 하류 회사였습니다. 그야말로 별 볼일 없는 청소회사였습니다. 이런 회사를 행복한 직장이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그는 직원들의 만족이 고객들의 만족을 보장한다는 생각에서 직원들을 만족시키는 것으로부터 회사의 변화를 시도합니다. 그래서 그는 고객 만족을 위해 직원을 만족케 할 일들을 시행합니다.

야베 데루오 환대부장이 직원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꺼낸 첫째 카드는 자부심이었습니다. 직원들에게 자부심을 심어 주었습니다. 직직한 청소부 복장 대신 꽃무늬가 들어간 산뜻한 유니폼을 입게 합니다. 텡세이가 청소 회사가 아닌 ‘여행 추억을 파는 회사’라는 생각을 종업원, 손님까지 느끼게 합니다. 시한 청소부가 아닌 승객들에게 쾌

적한 여행환경을 제공하여 승객들로 하여금 ‘여행의 추억을 갖게 하는 사람’으로 스스로를 생각하니 청소가 즐겁습니다. 청소하는 일이 행복한 일이 된 것입니다.

직원들의 만족을 위한 데루오 환대부장의 두 번째 카드는 사명감 심어 주기였습니다. 우리는 ‘어차피 청소부’라는 의식에서 벗어나 우리는 ‘신칸센 운행에 꼭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의식을 심어 주었습니다. 직원들에게 천직의식을 심어주고 일본이 자랑하는 신칸센을 유지하는 주역이라는 사명감을 심어 줍니다. 사명감에 충만한 그들은 행복합니다.

야베 데루오 환대부장이 직원만족을 위해 사용한 세 번째 카드는 전문성을 부각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신칸센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우리들밖에 없다는 의식을 심어 주고, 철저한 분업을 통해서 전문적으로 일하게 합니다. 간단한 청소지만 철저하게 매뉴얼을 따라 일하게 합니다. 단순한 일이지만 고도의 숙달을 요구합니다. 직원들이 전문성을 가진 자부심을 갖게 합니다.

일터가 행복해야 행복합니다. 직원들의 행복을 도모하는 회사가 좋은 회사입니다. 구성원의 행복을 위해 일하는 리더가 좋은 리더입니다. 행복한 직원들이 일을 잘합니다. 행복할 때에 능률이 오릅니다. 행복한 직장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직원들을 행복하게 하는 CEO와 상관이 되기를 바랍니다. 직원들이 행복할 때 CEO는 더 큰 행복을 누립니다.

순교자의 소리, 새로운 북한말 오디오 성경 녹음

순교자의 소리(The Voice of the Martyrs Korea, VOM)는 미국 비영리단체인 Faith Comes by Hearing(FCBH)과 함께 북한 방언으로 된 신약 성경과 창세기를 오디오로 녹음한다. 녹음된 오디오 성경은 북한 주민들이 있는 어느 곳이든 배포되며 라디오로도 송출된다.

이번에 새로 녹음할 북한말 오디오 성경은 10년 전 FCBH와 VOM이 작업한 오디오 성경을 대체할 예정이다. 이 오디오 성경은 북한 출신의 배우가 개역 개정판 성경을 녹음한 것이다.

VOM의 폴리 현숙 대표는 “이 오디오 성경이 사역에 있어서 도움이 되었으나 탈북민들에게는 이해하기 쉬운 내용이 아니었다”면서 “많은 북한 주민들은 이 개역 개정판의 어떤 단어나 표현의 의미를 정

확히 알고 싶어도 그 답을 얻지 못하는 곳에 있다”고 전했다. 폴리 현숙 대표는 “그들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최선의 방법은 그들 자신의 방언으로 가장 훌륭하게 번역된 성경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오디오 녹음에 사용된 성경 번역본은 조선어 스테디 성경이며, 이 번역은 평양식 공동번역이다. 이 번역판은 원래 북한 정부가 번역한 것으로, 성서 언어학자들은 이 번역본이 정치적 편견을 갖고 있지 않으며 이해하기 쉽고 정확한 번역이라는 것에 동의한다.

북한이 1983년과 1984년에 신약과 구약을 각각 1만 부씩 인쇄했지만, 평양에 있는 북한의 선전용 교회의 방문객을 제외하고는 실제로 거의 배포되지 않았다. 1990년에 신

약 합본이 간행되었으나 역시 북한 주민들에게는 배포되지 않았다.

폴리 현숙 대표는 “우리가 17년 동안 북한 사역을 하며 깨달은 것 중 하나는, 북한 주민들이야말로 자신의 동족들에게 가장 적합한 사역 자라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북한말로 녹음된 이 오디오 성경은 북한 주민들이 다른 북한 주민들에게 다가가 사역을 완수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조선어 성경의 녹음은 올가을에 완료될 예정이지만, 조선어 스테디 성경은 한국돈 25,000원 이상 기부금을 낼 경우, 순교자의 소리를 통해서만 구할 수 있다. 큰 글자 조선어 스테디 성경은 30,000원 이상이다. 이 성경에 관심이 있다면 한국 순교자의 소리 사무실로 연락하면 된다.(한국 02-2065-0703)

기독교일보

편집고문 : 박희민, 장재호, 박기호, 방지각, 김중언, 고승희, 민중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 이인규 이 사장 : 임덕순 고문변호사 : 정찬용
 지사 :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카고, 애틀랜타, 시애틀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E-mail : chdailya@gmail.com
 Pay to the Order of : Christianity Daily
 주소 :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제6회 미주 청소년 2018 호사랑 글짓기 그림 공모전

“미래의 꿈인 청소년들에게 가족과 가정을 통해 ‘나는 누구인가?’ 자기 정체성을 확고하고 진정한 행복은 가정에 있음을 배우고 바른 가치관으로 성장하여 미래의 주역이 되는 것이다.”

응모 대상
 초등부(1학년~5학년), 중고등부(6학년~8학년), 고등부(9학년~12학년)

응모 주제
 호 글짓기 (한글, 영문 모두 가능함)
 호 그림

이웃 / 친구와 나누고 싶은 축복들(것들)
 The Blessings I Want to Share with My Friends!

응모 분량 및 규격
 호 글짓기 (Letter size 3 pages, 글자크기 12pt)
 호 그림 (크레파스화, 수채화, Drawing, 아크릴 등)
 초등부(1st-5th) - 14" X17" (S)
 중고등부(6th-12th) - 18" X24" (L)

• 작품 제출시 작품 뒷면에 10줄 이내로 내용을 설명해야하며, Full Name, Grade, E-mail, Mailing Address, Phone No.를 꼭 명시해야
 • 작품은 시상식 당일 행사 후 반환 가능.

작품 제출 방법 및 참가비
 우편, 방문, E-mail(글짓기에 한함), 그림작품은 개인별로 접수 합니다.
 참가비 : \$10 (check payable to Hyosarangus)

접수 기간
 2018년 4월 20일 ~ 5월 25일(금) 마감

상금 및 상품
 대 상(2) : 상금 \$500 특별 상 : 상품
 최우수상(4) : 상금 \$300 장려 상 : 상품
 우수 상(6) : 상금 \$200 HAVEN 상 : Scholarship
 * 참가 학생 전원에게 기념품 및 상장 수여

시상 일시
 2018년 6월 16일(토) 오전 10시
 플러튼 장로교회(515 S. Brookhurst Rd. Fullerton CA 92833)
 축하공연 : CTS 어린이 합창단, Lenette 연주단 공연

작품 제출 및 문의
 호사랑선교회(SBC)
 Tel. 714.670.8004 Cell. 562.833.5520
 (7342 Orangethorpe Ave #B113, Buena Park, CA 90621)
 E-Mail: hyosarangus@gmail.com

신앙여인의 모범

잠언 31:10-31



서울 성은교회 목사 장재효

한 가정은 남편과 아내라는 부부에서 시작하여 자녀가 더해져서 구성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가정에서 아내는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현숙한 여인이라 칭찬 받게 되는 아내는 어떻게 행하는 자인지 자세히 알려주십니다.

성경은 남자에게서 여자가 낳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여자는 남자에게 소속된 반쪽이 됩니다. 에베소서에는 여자의 머리가 남편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정에 주신 질서입니다. 현숙한 여인은 이를 우선적으로 인정하여 남편을 가정의 머리로 존중하는 데에서 시작됩니다.

1. 현숙한 여인의 가정 경제 생활

10절에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리라”고 말씀합니다. 현숙한 여인은 어질고 깨끗한 여인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현숙한 여인의 가치는 귀한 보석인 진주보다 더 값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주는 장식품에 불과하지만, 현숙한 여인은 신앙인격이 무르익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생활화되고 성령에 사로잡혀서 영적인 소망이 무르익은 사람입니다. 그녀는 내세의 소망을 목적으로 살기에 육신의 남은 때를 남편과 자녀들을 위하여, 가난한 이웃을 위하여, 또 그리스도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부지런히 수고하며 일하게 됩니다.

11-13절에 이 여인은 남편의 신임을 얻습니다. 그녀가 묵묵히 아내의 역할을 잘 감당하니 남편이 아내를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형성된 신앙인격이 그 남편에게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자기의 생활에서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는 모습이 느껴지도록 삽니다. 그 사람이 바로 신앙으로 모범이 되는 여인의 모습입니다.

14-17절에 현숙한 여인은 참 부지런히 일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녀는 새벽에 일찍 일어납니다. 집안의 일꾼을 모아 자기가 먼저 음식을 만들어서 아침을 먹고 하루에 할 일을 일꾼들에게 분담시킵니다. 하루 동안 부지런히 해야 감당할 수 있는 일을 나누어 맡기므로 일꾼들이 딴 짓을 못하게 합니다. 또한 자신은 근검절약하면서 그 가정을 경제적으로 일으키는 역할을 잘 감당합니다. 힘으로 허리를 묶는다는 것은 경제적 힘이 있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그녀는 건강이 넘칠 뿐만 아니라 경제력도 튼튼하다는 뜻입니다.

18-20절에 그녀는 하나님을 섬길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밤낮 쉬지 않고 일하는 여인입니다.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자기 재산만 늘이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곤란한 사람들에게 손을 펴고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밉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수고와 사랑의 손길을 베풀므로, 더 많은 사람이 자신과 같은 그리스도인 되기를 바라고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자기중심으로 이기적이고 욕심을 부리는 사람은 손이 오그라져서 펴 줄 모릅니다. 밤낮 자기가 잡은 것을 놓칠까봐 힘을 다해 손을 쥐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더 채워 주시려고 해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못 받습니다. 밤낮 손에 쥔 그것만 잡고 썰다가 죽는 불쌍한 인생입니다. 그런 인생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2. 현숙한 여인의 가족 섬김

21절에는 “그 집 사람들은 다 흥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집 사람을 위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명한 여인은 자신의 가족들에게 흥색 옷을 입혔습니다. 흥색 옷은 왕이나 부자만 입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옷은 이중 천으로 되어 그 사이에 솜을 집어넣어 만듭니다. 붉은 옷을 입은 사람은 눈이 와도 옷이 따뜻하니 걱정할 일이 없습니다.

22절에서는 자신을 위하여 아름다운 방석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는다고 말씀합니다. 아름다운 방석은 자신의 지위를 말합니다. 즉, 자기 지위를 자기가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는다는 것은 계절에 맞게 입을 옷이 다 준비되어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름에는 세마포를 입고, 겨울에는 자색 옷을 맞추어 입는 경제적 여유가 있음을 말합니다.

23절에 남편 내조에 대해서는 “그 남편은 그 땅의 장로로 더불어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아는 바가 되며”라고 말씀합니다. 당시에 성문은 장로들이 앉아서 백성들의 송사와 시비, 강탈에 대해 판결해 주는 법원의 역할을 했습니다. 현명한 여인은 남편을 그 자리에 앉히기 위해서 내조를 잘 한 것입니다. 남편을 최고의 지위에 올려놓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 여인은 남편을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내조를 잘함으로 인해 도리어 자신의 지위를 올려놓게 됩니다. 남편이 어디에서나 더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신뢰를 받는다면, 아내가 되는 여인은 아무개의 사모님이란 존칭을 받게 된다는 것

입니다. 따라서 교회의 모든 딸들은 자기 남편을 험담하거나 낮추어 욕하는 것을 해서는 안 됩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소속되어 있기에 남편이 낮아지면 그에 소속된 아내도 덩달아 비천해지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남편의 지위가 올라가면 그 아내 역시도 당연히 그 지위가 올라갑니다.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24-27절까지는 남편의 지위를 높인 후에 다시 열심히 일하는 아내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베로 옷을 지어 팔고, 가정의 산업을 일으킵니다. 자기가 솜을 잡고 가락을 뽑아서 실을 가지고 베를 만들어 무역하는데 팔고, 띠를 만들어 장사꾼에게 팔며, 능력과 준귀로 옷을 삼고 후일에 웃으며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어 그 혀로 인애의 법을 가르친다고 말씀합니다. 이는 그 시대의 젊은이들에게 지혜를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집안일을 살피고 게으르게 얻은 양식을 먹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게으르게 얻은 양식을 부끄러워 할 줄 아는 근면 성실한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3. 현숙한 여인이 받는 보상

28절에 “그 자식들은 일어나 사례하며”라고 말씀합니다. 자녀들이 어머니를 향하여 감사의 인사를 올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 최고의 어머니이며, 가장 존경하는 어머니라고 자랑하게 됩니다. 남편 역시도 아내를 향한 칭찬이 마르지 않습니다. 세상에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여러 여자보다 더 뛰어나다고 감사를 표하게 됩니다. 남편은 아내로 인하여 현재의 자신의 모습을 갖출 수 있었음을 뜨거운 마음으로 감

사하며 칭찬하는 것입니다. 현숙한 여인은 남편에게 이런 칭찬을 들을 때에 비로소 자기 인생의 최고의 보람을 느끼게 되고, 그동안 수고한 모든 고생에 보상을 받게 됩니다.

30절에 “고운 것도 거저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겉모습을 위해 얼굴뼈를 깎고, 다른 곳의 살을 뜯어다 붙이는 성형을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걸치레보다 속사람인 영적 신앙이 성숙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을 인하여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이 얼마나 보람되고 영광스런 일입니까? 그가 행한 일로 인해 열매를 얻게 되고, 모든 사람이 모이는 성문에서 현숙한 여인이라는 칭찬을 받게 됩니다. 이런 영광이 우리의 삶에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부터 각 가정에서는 아내들이 행복하고 칭찬을 받고 영광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먼저 남편을 신앙인격으로 잘 뒷바라지해야 합니다. 그러면 남편이 하나님의 큰 일꾼으로 쓰임 받고, 많은 사람으로부터 신뢰와 존경의 대상이 되게 됩니다. 남편의 지위가 올라감에 따라 아내 역시도 거기에 따르는 대접이 필연적으로 달라집니다. 자식들도 신앙인격적 수양으로 양육하여 예수님 마음에 드는 자녀들로 양육해야 합니다. 그런 자녀들이 교회에서 요긴하게 쓰임 받는 일꾼이 될 수 있고, 하나님 섬기는 복을 자자손손 이어갈 수 있습니다.

성은교회 장재효 목사 TV / RADIO / 신문 / 인터넷 동영상 설교

한 국 선 교 설 교			
TV 한국방송 설교		한국 신문 설교	
CBS TV	목요일 오후 2시	경북 기독교 신문	3면 설교
CTS TV	금요일 오전 6시	기도원 연합신문	3면 설교
해 외 선 교 설 교			
TV 미국방송 설교		라디오 미국방송 설교	
COX TV 워싱턴DC	화요일 오후 6시	목요일 낮 12시	AM1540 라디오 코리아 주일 오전 8시 / 동영상 설교 제공
	토요일 오전 7시	주일 오후 10시30분	
CTS TV	수요일 서부 오후 4시30분 / 동부 오후 7시30분	AM1190 시카고 기독교방송	월요일 오전 11시 20분
	토요일 서부 오후 6시 / 동부 오후 9시	AM1190 LA 미주 복음방송	월요일 오후 5시 / 하와이 현지시간 오후 5시
미국 신문 설교		AM1310 기쁜소리방송	화요일 오후 7시30분
기독교일보	5면 설교	오프라인 칼럼 설교	금요일 오후 2시30분
	인터넷신문 설교	온라인 칼럼 설교	수요일 오후 1시, 오전 2시

지구촌 어디서든 YOU TUBE에서 “장재효 목사” 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시청 가능합니다.

提供 국제성은복음선교회



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에서 한영 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 학위과정: 목회학석사(M.DIV.) & 신학석사(M.T.S.)
- 위치: GATEWAY SEMINARY'S SOUTHERN CALIFORNIA CAMPUS
게이트웨이남가주캠퍼스 (251 S. RANDOLPH AVE. SUITE A, BREA, CA 92821)
- 등록마감일: 7월 15일 (예비지원서 [PRE-APPLICATION]은 6월 1일)

> 한영 이중언어과정은

- 미래 이민교회의 지도자들을 훈련시키는 목회자 양성 프로그램입니다.
- 세계최대의 개신교단인 남침례교회가 후원합니다.
- 본교의 자원과 커리큘럼이 활용됩니다.
- 성경적이고 선교적이고 세계적인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합니다.
- 탁월한 학문성과 교단의 지원 그리고 이민교회 목회자로서 온전히 구비된 미래교회 지도자들을 위한 과정입니다.

>> 본 과정은 주로 한국어로 진행되지만,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의 교수진과 자원이 충분히 반영됩니다. 북미주 최고의 학력인증기관인 the Association of Theological Schools (ATS)와 Western Association of Schools and Colleges (WASC)에서 학위를 인정하는 프로그램입니다.

CONTACT FOR CONSULTATION: 714-256-1311 EXT. 24 KEB@GS.EDU
FOR MORE INFORMATION VISIT : WWW.GS.EDU



FABIEN FINANCIAL INC.

무담보 비즈니스 론 Fabien에 맡기시면 모두 해결해 드립니다!

까다롭고 어려운 용자, 쉽고 확실하게 해결합니다.

은행에서 비즈니스 용자를 거절당하셨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 ✓ No 크레딧 Bad 크레딧, 용자 문제 없습니다.
- ✓ 세금보고서가 없이도 용자가 가능합니다.
- ✓ 비즈니스 하시는 분은 누구나 용자 가능합니다.
- ✓ 비즈니스 매매 용자

10K~500K

까지

캐쉬 어드밴스

SBA 용자

상업용 부동산

하드머니 [플리핑 용자/Flipping Loan]

www.FabienFinancial.com

금융 전문가가 직접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T. 714.264.7288 | 844.380.9990

fabienfinancial@gmail.com

6131 Orangethorpe Ave #400 . Buena Park, CA 90620 (Center Park 빌딩 내)

Financial Freedom을 위한 상담을 해드립니다.

Business Service

- 주식회사 설립
- 비즈니스 크레딧 Build Up
- 상업용자
- 비즈니스 매매 상담

Real Estate Service

- 리스팅 전문
- Flipping House 투자상담
- Flipping House 용자상담
- Hard Money



Love Foundation
LAW GROUP

러브파운데이션

LDA#315 / Bond 가입업체 / 714.227.7358
6131 Orangethorpe Ave. #400 Buena Park, CA 90620 (Center Park 빌딩 내)
Premier Services Realty DRE #01895705

Dr. David Oh 법학박사 데이빗 오

- Azusa Pacific University 졸업
- Azusa Pacific University 석사
- Graduate School of Houston 박사
- Global Financial Service Certificate 수료



장애인의 날 기념예배 후 기념촬영

49년 뇌성마비에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

애틀랜타밀알, 장애인의 날 기념예배

애틀랜타밀알선교단(단장 최재후 목사) 주최 '2018 장애인의 날 기념예배'가 지난 18일(수) 애틀랜타연합장로교회에서 열렸다.

이날 주강사로 초청된 남가주밀알선교단 영성문화사역팀장 이준수 목사는 서강대 불어불문학과를 졸업하고 UCLA 역사학과 석사 졸업 및 박사 과정을 수료했으며 트리니티 신학교에서 목회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이 목사는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의 고난의 의미와 우리 연합학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과 은혜를 나눴다.

이 목사는 "출생 직후 심한 황달로 뇌성마비 장애를 앓게 됐다. 뇌성마비 장애인으로 수많은 고난과 시련을 겪어왔지만 그 이상으로 뜨거운 축복과 은혜를 내려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전하고 "장애인은 불편함, 불가능, 불안전함 등으로 보이고 절망과 수치, 열등감이 존재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장애는 더 이상 불가능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장애인들도 하나님께서 사랑하

시는 소중한 자녀이며, 일반인과 동일한 인격과 인권을 지닌, 이 세상을 함께 살아가야 할 아름다운 형제자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며 "나도 49년간 뇌성마비로 차별과 편견을 당했지만 원망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고 자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 목사는 "사도 바울도 자신의 약점을 통해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능력이 나타나게 됨을 깨닫게 됐다"고 설명하고 "성령님이 임하시면 한계를 초월한 변화가 일어나고, 병든 세상을 고치는 은혜와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다. 여러분도 이 고통 속에 깃든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려고 애쓸 때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이 척박한 현실, 모진 고난 속에서 흘리는 땀과 눈물은 헛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밀알선교단은 제15회 밀알여름학교를 오는 6월 4일부터 29일까지 개최하며 이 행사를 위한 점심봉사 및 자원 봉사자를 찾고 있다.

문의) 404-644-3533

윤수영 기자



故 정인수 목사 2주기 추모예배

하나님 나라 확장 위한 헌신 본받아

故 정인수 목사 2주기 추모예배 열려

미주 한인교회를 대표하는 목회자로서 건강한 한인교회상을 제시한 애틀랜타연합장로교회故 정인수 목사의 2주기 추모예배가 지난 17일(화) 본당에서 열렸다.

심우진 목사의 인도로 진행된 추모예배는 찬양, 설교, 추모 동영상 상영, 축도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날 말씀을 전한 조현성 목사는 "정인수 목사의 평소 가르침대로 땅 끝까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복음 열정과 사랑을 열심히 실천하면서 살아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어 조 목사는 "연합장로교회는 정인수 목사가 소천하면서 위기를 맞기도 했지만, 온 교우가 사랑과 헌신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제 몫을 해나가며 은혜의 시간으로 잘 이겨내고 있다. 정 목사가 강조했던 리더십을 다시금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에 열려있는 교회로 하나님 나라와 선교를 위해 크게 사용되길 바란다"고 소망과 위로의 말을 전했다.

윤수영 기자

워싱턴주 한인장로회 성가 대합창제

워싱턴주 한인장로회가 주최하는 제 22회 워싱턴주 성가 대합창제가 5월 6일(주일) 오후 5시, 시애틀 형제교회(담임 권준 목사)에서 개최된다.

워싱턴주를 대표하는 찬양제로 자리매김한 성가 대합창제는 각 교회가 교단과 교파, 지역을 초월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이며 시애틀과 웨드럴웨이, 타코마와 올림피아 등 워싱턴주 전 지

역에서 교회와 합창단이 참가해 성향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한인장로회는 "이 성가 대합창제는 전 미주에서도 손꼽히는 화합과 연합의 장으로 높이 평가받고 있다"며 "여호와와의 이름을 높이며, 기쁨과 감사, 구원의 감격이 넘치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초대의를 전했다.

풀원 기자



LA 지역

1부예배 오전 8:00 EM예배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20(월-금)
젊은이 예배 오후 2:22 오전 6:20(토)
주일-비밀중학교 / 토요일-17와 비몬트 크니
주중세백- 520 S. La Fayette Park Pl, #450, Los Angeles, CA 90057

김기섭 담임목사
www.LAsarang.com

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 깨우고 이방사도를 복음화하며, 이방가정을 치유하며, 선교영광을 순종하는 교회
520 S. La Fayette Park Pl, #450, Los Angeles, CA 90057
주중연락처 T. (213)386-2233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성경공부 오후 1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토)

장태원 담임목사

LA세계선교교회
선교를 통해 행복한, 사랑의 공동체
3407 W. 6th, #412 (6가와 카탈리나)
T.(213)909-6473 / www.missionla.org

주일예배 오전 10:50
평신도 리더십훈련 매주 수 오후 7:00
금요 말씀과 삶 공부 오후 7:30
토요일침례 오전 8:00

새니킴 담임목사

LA씨티교회
4322 Wilshire Blvd. #301, LA, CA 90010
T.(323)833-9090

1부예배 오전 9:00 어린이부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Youth예배 오전 11:00 토요일연합세백 오전 6:20

한천영 담임목사

갈릴리선교교회
가족같은 교회, 가족 이상의 가치
2212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35-6412 / gmcchurhc.com

1부예배 오전 8:00 새벽예배 오전 5:30 (월-금)
2부예배 오전 10:30 오전 6:00 (토)
3부예배 오후 12:45 유초등부 오후 12:30
금요기도회 오후 7:00 중고등부 오후 12:45

강진웅 담임목사

갈보리민음교회
피난처 되시는 예수그리스도를 경향하는 제자들의 공동체
3300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10
T. (213) 365-8880 / F. (213) 365-8802

주일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월-토) 오전 6:00
매일 성경통독 (월-토) 오전 7:00

엘리아 김 담임목사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아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264 S. Rampart Blvd. #276, LA, CA 90057
T. (213) 272-6031 (37와 Rampart Blvd 교차로 북동쪽에 위치)

1부예배 오전 7:40 EM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9:30 새벽예배 오전 5:30 (월-토)
3부예배 오전 11:45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진유철 담임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새운 뜻을 이루아가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저녁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유초등부 오전 11:00 6:00(토)
중고등부 EM 오전 11:00

김문수 담임목사

나성제일교회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믿음의 공동체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T. (213) 388-7101

1부예배 오전 7:30 성인 EM예배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11:30 한여청년예배 오후 2:00
3부예배 오후 1:00 전야예배 오후 3: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화-토 오전 6시

박헌성 담임목사

나성열린문교회
하나님나라의 비전을 실현하는 교회
3281 W. 6th St., LA, CA 90020
T. (213) 383-2600, (213) 383-2602 / laopendoor.org

대예배 1부 오전 8:00 세각죽성경공부 오후 1:00
대예배 2부 오전 11:00 중보기도회(목) 오후 1:00
유년주일학교 오전 11:00 금요찬양 오후 7:00
중고등부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화-토)

정병노 담임목사

새일교회
LA Sehil Presbyterian Church
760 S. Westmoreland Ave, Los Angeles, CA 90005
Tel. (213)384-8690, (213)320-7240 Email: lasehil2011@gmail.com
(87와 Westmoreland 교차로 First Baptist Church 옆에 있습니다.)

주일예배 오전 10:45 금요일예배 오후 8시
주일오후예배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5:45(월-금)
매일 밤 기도회 오후 9시

박은중 담임목사

에일한인교회
치유하는 교회, 회복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1611 Beverly Bl., Los Angeles, CA 90026
T. (213) 975-9191 www.wpcjesus.com

주일 1부예배 (본당) 오전 8:30 주일학교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본당) 오전 11:0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본당) 저녁 8:3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 6:30
리셋예배(멜리엔에 산에베일) 오전 11:00

정장수 담임목사

올림픽장로교회
세상을 구원하고 행복을 주는 교회 같은 말, 믿음, 공, 열매
3250 Wilshire Bl., #160., Los Angeles, CA 90010
T.(213)387-1700 C.(213)500-4737 / olympic-church.org

1부예배 오전 9:00 유년부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Youth 주일학교 오전 11:00
수요기도회 오후 8:00 청년대학부 오전 11: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박효우 담임목사

풍성한 교회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회복하며 선교하는 교회
2911 Beverly Blvd., LA, CA 90057
T. (213) 381-9490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0: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 (월-토)

신승훈 담임목사

주님의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섬기고 사랑하는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1부예배 오전 9:00 금요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오전 6:30 (토)
중고등부, 유초등부 오전 11:00
4대 지역 : 유아인 지역, 후드 지역, 정학 지역, 십자가 지역

이명수 담임목사

청운교회
선교에 흐름, 소.친.초.정신의 흐름, 바른교회관의 흐름
4465 Melrose Ave., Los Angeles, CA 90029
T. (323) 667-9920

1부예배 오전 8:0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30 EM 2부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교육부 오전 11:30 새벽예배(매일) 오전 5:30

민종기 담임목사

충현선교교회
블러세(Calling), 고지교(Healing), 기쁨(Enjoying), 맞선대(Confronting)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818)549-9191 / F.(818)549-9199 / choonhyun.org

주일1부예배 오전 8:00 EM(대.청) 오후 1: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8:00
한글학교주일 오전 10: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유초등부 오전 11:00 오전 6:30 (토)
중고등부 오전 11:00

곽부환 담임목사

한마음제자교회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213)321-4433

주일예배 오전 11:00
목요침례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 (화-토)

이순환 담임목사

한샘교회
The Church By the Stream / 은혜의 샘, 생수의 강
1911 Wilshire Bl., LA, CA 90057
T. (213) 505-3838 / yes9389@hotmail.com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수요일예배 오후 7:30

강지원 담임목사

한우리장로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치유와 회복이 있으며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
1932 10th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02-6709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LA 동부, 팜스프링스 지역, 라스베가스, 사우스베이, 토렌스

1부예배 오전 8:00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성경공부 오후 8:00
3부영아예배 오후 1:00 금요성경공부 오후 8: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이희철 담임목사

갯스윙연합교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교회
904 E. D St., Ontario, CA 91764
T. (909) 268-4279 / gwa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유초등부 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10:00 유치부 예배 오전 11:00

신용환 담임목사

나성한미교회
복음의 본질위에서 성령이 감동하는 교회
2727 N. Dufferin Ave., El Monte, CA 91732
T. (626) 444-0058



프란치스코 교황과 소년 ©유튜브 영상 캡처

하나님 안 믿어도 선하면 천국?

어린 소년 질문에 교황 답해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아빠가 천국에 가지 못했을까봐 눈물을 흘리던 소년에게 교황이 전한 메시지는 무엇일까? 지난 20일(현지시간) 영국 크리스천투데이는 가톨릭 매체 알레테이아를 인용해 프란치스코 교황과 어린 소년의 이야기를 보도했다.

최근 프란치스코 교황은 로마에 위치한 성바오로 성당에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이에 에마누엘이라는 이름의 한 소년이 마이크를 잡고 말을 꺼내기 시작했다. 그러나 에마누엘은 숨을 크게 몰아쉬고 제대로 말을 못하더니 눈물을 흘렸다.

교황은 에마누엘을 가까이 불렀다. 에마누엘은 교황에게 “아빠가 몇 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아빠는 하나님을 믿지 않으셨지만 우리들 모두 세례를 받게 했고 좋은 분이셨어요. 아빠가 하늘에 계실까요?”라고 물었다.

이에 교황은 “아들이 아버지를 좋은 분이라고 말하는 것은 매우 아름다운 일이다. 그들은 자녀들이 ‘아버지는 좋은 분이

셨어요’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아름다운 간증을 남겨주셨다. 아버지의 강인함을 물려받아서 오늘 우리 앞에서 이렇게 울 수 있는 용기를 가졌다. 자녀를 이와 같이 키운 분이려면 그분은 정말 좋은 분이였을 것”이라고 말해주었다.

이어 “아버지는 신앙인은 아니었다. 자녀들에게 신앙을 물려주지 않았으나 선한 마음을 지녔다. 에마누엘은 믿지 않는 아버지가 천국에 계실까 고민하고 있다. 그와 같은 아버지에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한가? 하나님께서 선한 사람을 버리실까?”라고 물었고, 사람들은 모두 “아니오”라고 대답했다.

교황은 “그것이 나의 대답이다. 하나님은 에마누엘의 아버지를 자랑스러워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황은 지난 2015년에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 양심을 따르기만 하면 하나님께 용서를 받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강혜진 기자



전도용 피켓을 들고 있는 저우진샤 성도 ©한국 순교자의 소리

시진핑 주석에게 복음 전하러다 구금

다렌 출신의 ‘저우진샤’

중국 시진핑 주석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한 중국인 여성이 구금됐다.

한국 순교자의소리는 지난 3월 16일 중국 북동부 라오닝성에서 공산당의 두 기관이 만나는 동안 중국 시진핑 주석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한 중국인 여성이 구금됐으며 차이나에이드(China Aid)를 인용해 10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3월 15일 베이징에서 다렌으로 온 ‘저우진샤’는 황제의 정원이었던 ‘중남해’ 출입국에 도착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적힌 피켓을 들었다.

“하나님은 전 세계인들을 사랑하시고, 시진핑에게 크게 말씀하고 계신다!”

그녀는 전국인민대표자회의와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가 열리는 동안 시 주석에게 다가가는 것이 목적이었다. 오후 1시 42분 경, 다렌시 황허 가 경찰서장은 저우진샤를 끌어냈고, 그녀는 고향으로 호송되었다. 다음 날, 다렌시 공안부 시장 지서는 그녀를 구금시켰다.

상황을 잘 알고 있는 한 익명의 기독교인은 “저우진샤는 지난 몇 년간 중남해를 수십 번 여행하며 복음을 전했고, 그때마다 구금되거나 납치됐다. 2016년 3월에도 그녀는 중남해를 방문해 다음과 같은 내용의 피켓을 들고서 있다가 10일 간 행정 구류에 처해졌다.

“하나님은 전 세계인들을 사랑하시고 시진핑과 평리위안(시진핑 부인)에게 크게 말씀하고 계신다. 무신론은 죄를 양성

할 뿐이며 인간을 파멸시킨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중국 경찰은 이같은 그녀의 행동을 ‘사회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로 간주하고 그녀의 물품을 압수했다.

저우진샤와 안후이성 출신의 또 다른 기독교인 시신홍은 지난해 베이징에 있는 인민대표자회의로 찾아가 그 해 열린 전국 인민대표자회의와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의 참석자들에게 말씀을 전하려는 시도를 하다가 ‘분쟁을 일으키고 분란을 촉발한다’는 혐의로 모두 구금됐다.

익명의 관계자는 그러나 더욱 엄격하게 종교를 규제하는 중국 종교 사무조례 개정안이 지난 2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저우진샤가 기소될까 우려하고 있으며 해외 언론에 이같은 이야기가 알려지길 원하고 있다.

한국 순교자의 소리 폴리 현숙 대표는 “저우진샤는 기독교인들이 개인적으로 큰 대가를 치르더라도, 권력자들에게 사랑을 담아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기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준다”면서 “중국에서 때로는 한국에서도, 정부는 기독교가 그저 개인의 신앙에 머물길 원하지만, 저우진샤는 예수님이 우리 각자의 삶을 다스리며 지도자들의 주님임을 상기시켜준다”고 말했다.

강혜진 기자

1부 예배 오전 8:30 EM예배 (1부)오전9:30
2부 예배 오전 11:00 EM예배 (2부)오전11:00
금요성령집회 오후 8:00 한어 청년부 주일오후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오명찬 담임목사

웨스트힐장로교회
예수님처럼 소통하는 교회(Communicate Like Jesus)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 884-2391

밸리채플 Valley Chapel MP서울 최혁 담임목사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1부 예배 오전 9: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30
19514 Rinaldi St., Northridge, CA 91328 588 Atlas Ave. Monterey Park, CA 91755
T. (818)363-8887 Tel: (323) 837-9900

주안에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T. (818) 363-5887 / www.In-ChristCC.org
e-mail: iccc.office@gmail.com

O. C. / 얼바인 지역

결혼교실, 사모교실, 부부교실, 아버지교실
www.GodFamily.com
www.CMFM.org

김철민 장로

CMF선교회
가정을 세우는 CMF Ministries

13463 1/2 Pumice St., Norwalk, CA 90650
T. (562) 483-0191 / (714) 493-0191

1부예배 오전 7:30 금요찬양 오후 7:30 김영길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30 장미인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영어장년부 오전 9:30, 11:30
한어대학생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5:30(월-금)/6:00(토)

감사한인교회
사랑받고 사랑하는 교회,전도와 선교에 정성을 다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1부(한국어) 오전 8:00 민경엽 담임목사
2부(한국어) 오전 10:00 말씀묵상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3부(영어) 정오12:00 한국학교(토) 오전 9:00
주일학교 오전 10:00 Youth Orchestra (주일) 오후 12:30
토요새벽연합예배 오전 6:30

나침반교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교회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
T. (562)691-0691

1부예배 오전 8:00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오병익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유·초등부예배 오전 11:00
토요새벽예배 오전 6:00 셀가족 예배 매월 4째주 주일 오후 5:30분
대학생예배 오전 11:00

남가주 베델 교회
예수님이 살아계신다고 소문난 교회

1201 S. Beach Blvd. #110 La Habra, CA 90631
T. (562) 524-2037 bethelchurch@gmail.com

1부예배 오전 9:00 금요성령집회 오후 8:00 박재만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한글학교 오후 6:00(월-금)
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예배 새벽 5:30(월-금)

남가주순복음교회
죽어가는 세상을 성령의 능력으로 살리는 교회

10871 Western Ave., Stanton, CA 90680
T. (714) 952-0191 / www.socalfgc.com

주일예배(KM) 주일 11:00am 금요찬양예배 8:00pm 안창훈 담임목사
영어예배(EM) 주일 9:00am (매월 두번째 금)
교육부예배 주일 11:00am 새벽예배 화-금 5:30am
(유아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토 6:00am

늘푸른선교회
Mission Community Church

2216 E. South St., Anaheim, CA 92806
T. (714)808-9191 / www.missionways.org
mcc.office.email@gmail.com

주일예배 오후 12:20 민승기 담임목사
금요찬양예배 오후 8시:30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갈보리새생명교회
행복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11 W. Las Palmas Drive, Fullerton, CA 92835
T. (714)615-9191, 995-5351 john_jm9191@yahoo.com

1부예배 오전 8:45 금요 Alpha 오후 7:30 이서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후 5:30(월-금)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오전 6:00(토)
EM예배 오전 9:30

미주비전교회
역동적인 예배가 살아있는 비전공동체

2536 W. Woodland Dr., Anaheim, CA 92801
T. (714)821-9900, 9901 / visioncc.org

1부예배 오전 7:15 성인영약예배 오전 9:15, 오전 11:30 김한오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15 일본어예배 오후 1:30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학교 오후 9:15,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베델한인교회
역동적 복음, 능동적 선교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권혁민 담임목사
2부 오전 9:15 중등부 오전 9:15
3부 오전 11:30 고등부 오전 11:30
4부 오후 2:00 한어부 오전 11:30
KM/CH한국부 오후 2:00

얼바인온누리교회
다음세대를 세우고 복음으로 다가서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 (949)261-9100 / vision.onnuri.org

1부예배 오전 7:30 EM 예배 오후 1:30(청년 영어)
2부예배 오전 9:30 새벽 예배 오전 5:30(월-금)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학교 오후 6:00(토)
4부예배 오후 1:30(청년 영어) 장년부 수요일장기도회 오후 7:30
FAM/EM예배 오전 11:30(청년 영어)

얼바인 침례 교회
하나님의 꿈이 있는 기쁨의 공동체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T. (949)857-9425 / www.irvinechurch.com

주일 인터넷 생방송듣기 오전 6:30 우대권 담임목사
주일 예배 오전 11:30
목요일예배 오후 7:30
토요일예배 오후 8:30 초등부 목요일예배 오후 7:30

영광빛복음교회
주의 권능, 치료의 광선을 행하고 알리는 교회

14515 Blaine Ave., Bellflower, CA 90706
T. (213) 291-5901 / (714) 833-2568 daekwon.org

주일 예배 오전 11:00 청년부 주일 오후 1:30 김인철 담임목사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화-토 오전 6:00
E.M.(Youth)오전 11:00

오렌지카나안장로교회
교회와 나는 하나이며 기쁨도 슬픔도 함께하는 영광공동체

940 W. Wilshire Ave. Santa Ana, CA 92707
T. (714)549-0121 www.myocpc.org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7:30 남성수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45 청년부예배 오후 2:00
3부찬양 오전 1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수요일예배 오후 7:30

오렌지카운터인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워 초대교회 역사 이룩하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rcoc.com

1부예배 오전 07:30 새벽예배 평일 오전 05:30 한기홍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09:30 토요일 오전 06:00
3부예배 오후 11:30 금요성령예배 오후 08:00
4부예배 오후 2:00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삼급받는교회 세계선교를 마무리짓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주일예배 오전 11시 30분 람학춘 담임목사
어린이예배 오전 11시 30분
찬양예배 오후 7시(수) 제사성서 오전 9시 30분(금)
중보기도 오후 8시(목) 새벽기도 오전 6시(화-토)

라구나힐스연합감리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24442 Moulton Parkway, Laguna Woods, CA 92637
T. (949)380-7777 / www.lagunaumc.org

1부예배 오전 8시 수요일예배 오후 7시 30분 백정우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시 30분
3부예배 오전 11시 20분
영어예배(EO) 오전 9시 30분
청년예배 오후 1시 30분

남가주동신교회
복음을 복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성도를 성도되게

2505 Yorba Linda Blvd. Fullerton, CA 92831
Tel. (714) 680-9556-7 www.dongshinchurch.com

1부 예배 오전 8시 주일학교 오전 11시 안성복 담임목사
2부 예배 오전 11시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시 30분
수요일예배 오후 7시 30분
Youth/ College 주일 오전 11시

다우니제일 교회
새 사람을 일으켜 (엡4:24)

7948 Quill Dr. Downey, CA 90242
T. (562) 861-1004 www.downeyfirstchurch.org

EM CHURCH

Sunday Celebration Services: 9 AM & 11 AM PASTOR JUSTIN KIM
Wednesday College Fellowship: 7 PM

Bethel English Church

18700 Harvard Ave, Building C, Irvine, CA 92612
T. (949) 385-3051 / www.ocbethel.com

EM Sunday Service: 12:00 PM PASTOR JAMES KWAK
Children's & Youth Services: 10:30 AM
Friday Night Bible Study (Jr. High - Young Adults): 7:30 PM

First Presbyterian Church of OC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1-2029 / www.oc1church.com

Placentia Site Sunday Services: 10 AM PASTOR HAROLD KIM
Artesia Site Sunday Services: 11:30 AM, 1:15 PM

Christ Central of Southern California

Artesia: 11841 178th St, Artesia, CA 90701
Placentia: 500 Bradford Ave, Placentia, CA 92870
T. (562) 246-0363 / www.christcentralsc.com

Sunday Service: 9:30 AM PASTOR RONNIE PARK
Children's and Youth Services: 11:30 AM on Sundays, 8:00 PM on Fridays

Good Stewards Church

2701 S Woodgate Dr, West Covina, CA 91792
T. (626) 913-6611 / www.gschurch.org

Sunday Services: 9 AM, 11 AM, and 2 PM PASTORS DAVID LEE & SUNG HONG
Youth Services: Sundays at 11 AM, Fridays at 7:30 PM
Sunday School: Sundays at 11 AM

Cornerstone Church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www.cornerstonetv.com

Sunday Services: 11:45 AM PASTOR DAEVID YOON

Inland Church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 inlandem.org



남가주 LA 에 위치한 한길교회(The Way Church)는 보수 개혁주의 신앙이 확고한 담임 목사님을 아래와 같이 청빙합니다.

- **자격**
5년 이상 목회경험(부목사/행정/교육목사 포함) 정규신학 대학원을 졸업하신 M Div. 학위 취득자 PCA에 가입되었거나 가입하는데 결격 사유가 없는 분
 - **제출서류**
이력서
본인 소개, 신앙고백서 / 목회 비전
1년 이내 두편의 설교(최소 한편은 동영상)
목사 안수 증명서, 대학 및 신대원 졸업 증명서
목회자 2명의 추천서(preferred now, or later upon request)
제출서류 마감일 5/31/2018
 - **제출**
thewaychurch.calling@gmail.com
- 모든서류는 PDF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하신 서류는 청빙 목적으로만 사용되고, 반환되지 않습니다.

한길교회 청빙 위원회

4050 West Pico Blvd., Los Angeles, CA 90019

청빙공고

나성제일교회 유초등부

샬롬! 나성제일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품으셨던 유일한 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교회입니다. 저희 교회는 김문수 목사님께서 담임목사로 부임하신 이후로 새로운 비전을 품고 믿음의 도약을 이루고 있으며 함께 동역할 사역자를 모십니다.

- 〈지원자격〉
1. 미국에서 사역하시는 데 신분상 문제가 없으신 분
 2. 이중언어가 가능하신분
(영어가 능통하지 않아도 기본소통만 가능하시면 됩니다.)

- 〈제출서류〉
1. 이력서 (가족관계, 사역경력, 학력 포함)
 2. 신앙 간증
 3. 이메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4. lakfpc@gmail.com



김문수 담임목사

〈서류 제출 마감〉 사역자가 청빙 될 때 까지
〈문의 전화〉 T. (213)388-7101

크리스천 자녀를 위한 골프 교실

저렴한 비용으로 골프와 성경공부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
*픽/업/가/능

P.G.A Player Tour	(12~14살 1~2명 모집)
P.G.A Player Tour	(8~11살 1~2명 모집) (6~7살 1~2명 모집) 초보가능



- Email : mrjacob601@hotmail.com
- 문의 : 최 제이콥 프로
T(310) 598-0746

LA에담교회 1134 S.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20

*전도사님을 찾습니다.

(최 제이콥 목사)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New Bridge University Golf Management
The Reformed University 대학원
Dea Han Theological Seminary U.S.A 신학박사
LA 에담교회 담임목사

성령에 이끌린 사람들, 서상륜과 서경조

아펜젤러와 함께 1885년 조선에 입국한 장로교 선교사는 언더우드입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는 한국 최초의 개신교회인 황해도 소래교회를 보며 감회를 밝혔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씨를 뿌리러 온 것이 아니라 이미 뿌려진 씨의 열매를 추수하러 왔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미지의 땅에 선교를 위한 첫 발을 내디뎠다 생각했는데, 이미 한국에는 교회가 세워져 있을 뿐 아니라, 한국어 쪽 복음이 임해지고 있음을 보고 놀랐습니다.

한국 최초의 한글성경 번역에 참여한 사람이자, 한국 최초의 개신교회 소래교회를 세운 선구자는 서상륜(徐相崙 1849~1925)입니다. 그는 스코틀랜드 선교사 로스(J. Ross)와 매킨타이어(J. McIntyre)를 중국에서 만났습니다. 이 두 선교사들은 조선선교를 위해 기도하던 중, 1874년 국경을 넘나들며 흥삼장사를 하는 의주청년들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서 이응찬, 이성하, 백홍준, 김진기 등이 예수를 먼저 믿게 되었고, 한문수학을 받고 중국말도 잘 하던 서상륜도 나중에 만나 믿게 됩니다.

성령께서 흥삼장수 서상륜을 부르셨습니다. 중국에서 장티푸스에 걸려 온몸이 불덩이 같은 고열에서



민종기 목사
충현선교교회

달리며 사경을 헤멜 때, 이미 신자가 된 이응찬이 그를 매킨타이어 선교사에게 안내하였습니다. 생명의 위급함에 처한 서상륜은 의료선교사 헌터(Joseph M. Hunter)에게 치료를 받으면서 점차 회복되었습니다. 회생된 후, 그는 마침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후 서상륜은 신앙에서 로스 선교사의 한글 성경번역사업에 동참하게 되었고, 한문 실력이 출중한 그는 로스 선교사의 성경번역에 오른팔과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로스과 매킨타이어 선교사는 마침내 1882년 3월 24일 심양서 한글 성경 누가복음 3편 권을 최초로 발간하였습니다. 이 최초의 한글성경 번역작업은 로스와 서상륜의 공동 번역이라 말하여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게 성경 번역에 참여한 서

상륜은 번역된 쪽 복음을 가지고 압록강을 건너 고향 의주로 돌아옵니다. 국경관리에게 붙잡혔다가, 다행히 먼 친척의 도움으로 성경 10여 권만을 챙겨서 밤에 도주합니다. 그는 전도하여 회심시킨 동생 서경조(1852-1938)와 함께 외가 황해도 장연의 소래(송천, 松泉)로 피신합니다. 거기서 그는 몰래 숨겨온 성경을 가지고 친척과 인근 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전도가 점차 활기를 띠면서 가정집에서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이로써 1883년 5월 16일 한국 최초로 소래교회가 탄생합니다. 소래교회는 외국의 원조 없이 자생적으로 세워진 교회라는 점에서 더욱 큰 의미를 가집니다.

동생 서경조는 1887년 초 비밀리에 언더우드를 통해 세례를 받고, 1900년에 이르러 조선 최초의 장로가 됩니다. 그 이후 서상륜은 언더우드 선교사의 동역자가 되어 성경을 판매하고 전도하는 권서인(勸書人)으로 전국을 누볐고, 동생 서경조는 평양신학교 1회 졸업생이 되어 1907년에 평양 장대현교회에서 최초 7명중의 한 목사가 됩니다. 성령님은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교회를 세우셨고 성경을 번역하셨습니다.

천천히 깊이 읽는 즐거움

깨달음의 깊이는, 깊이 읽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깊은 깨달음은 깊은 읽기에서 나옵니다. 깊은 깨달음은 깊은 즐거움을 선물해 줍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여러 가지 즐거움 가운데 깨달음의 즐거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전에 깨닫지 못했던 것을 깨달을 때 놀라운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성적이면서 영적인 사람으로 만드신 까닭입니다. 우리는 깨달음이 임할 때 “아하!”라는 탄성을 조용히 외치게 됩니다. 깨달음의 기쁨은 발견의 기쁨입니다. 배움의 기쁨입니다. 각성(覺醒)의 기쁨입니다. 연결의 기쁨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와 연결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경험했던 과거의 사건과 연결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조금 더 설명해 드린다면 과거의 사건에 대한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으로 과거 사건을 조명하게 됩니다. 그때 놀라운 희열(喜悅)을 경험하게 됩니다.

천천히 깊이 읽기 위해서는 서둘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기 위해서는 한꺼번에 너무 많은 양의 성경을 읽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성경은 생명의 떡입니다. 우리가 한 번에 많은 양의 떡을 먹을 수 없는 것처럼 말씀도 한꺼번에 너무 많은 양을 먹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다독(多讀)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필요하다면 다독하십시오. 필요하다면 집중해서 많은 양을 몰입해서 읽도록 하십시오. 성경 전체를 보기 위해 그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의 맥을 잡기 위해 그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강준민 목사
새생명비전교회

의 전체 경륜을 깨닫기 위해 그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 66권에 나오는 한 권의 책이나, 어떤 주제에 관한 책을 한꺼번에 많이 집중해서 읽는 것은 결코 나쁜 일이 아닙니다. 로마서를 집중해서 천 번을 읽거나, 요한계시록을 집중해서 한 번을 읽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주 소중한 경험입니다. 어떤 책이든, 어떤 주제이든 많은 양을 반복해서 읽게 되면 그 분야를 통달할 수 있습니다.

많이 읽게 되면 많이 알게 됩니다. 많이 읽으면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아는 것만큼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 많아지면 달라집니다. 많이 읽는 것이 중요하지만, 많이 읽는 것과 함께 깊이 읽을 줄 알아야 합니다. 저는 다독과 정독에 균형을 이루려고 노력합니다. 다독하게 되면 다양한 주제를 알게 되고, 인생과 사람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인생에 대한 큰 그림, 또한 영원의 시각에서 모든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 다양한 관점과 다양한 표현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을 잘 이해하게 됩니다. 특별히 다양한 것을 수용하는 폭이 넓어집니다. 많이 읽는다는 것은 지식의 범위

를 넓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넓이와 깊이는 함께 만나야 합니다. 성경 지식의 넓이는 성경을 깊이 이해하는 길로 들어가기 위한 초석이 됩니다. 많이 읽었다면 이제 깊이 읽도록 하십시오. 깊이 읽을 때 깊은 깨달음에 이를 수 있게 됩니다.

헨리 나우웬의 가르침처럼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는 것보다 우리 자신이 성경에 의해 임해지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성경을 읽는 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자아를 발견할 수 있다면 깊이 읽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 담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다면 깊이 읽고 있는 것입니다. 읽기 전보다 읽은 후에 변화와 성숙을 경험했다면 깊이 읽고 있는 것입니다. 천천히 깊이 읽을 때 우리는 성경의 깊은 맛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송이꿀보다 더 달다”(시 19:10)라고 말했습니다. 다윗은 말씀의 깊은 맛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말씀을 천천히 깊이 읽을 때 중요한 것은 거룩한 상상력을 동원해서 말씀의 상황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성경 속에 나오는 인물들을 만나게 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성경을 천천히 깊이 읽는 이유는 하나님을 맛보아 알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때 우리는 변화를 경험하게 되고 성숙함에 이르게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천천히 깊이 읽도록 하십시오. 천천히 깊이 읽는 중에 깊은 깨달음에 이르도록 하십시오. 천천히 깊이 읽기를 통해 깊은 맛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충성이 곧 성공입니다



박성근 목사
로스앤젤레스한인침례교회

성공을 거두었다면 그것은 그에 앞서 희생을 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또 만일 어떤 사람이 성공은 하지 못하고 희생만 했다면 그것은 그 후에 올 누군가가 성공할 수 있는 발판을 닦아놓은 것이 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라는

긴 안목에서 보면 참된 성공은 눈앞에 나타난 결과만이 전부 아닙니다. 성공처럼 보이는 삶의 열매이건, 혹은 실패처럼 보이는 무모한 희생이건 하나님은 유효 적절하게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좀 더 긴 안목에서 인생을 보고 사역을 대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럼 없이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다면 그것 자체가 가치요 보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일의 크기나 경중이 아니라, 주어진 사명에 얼마나 충성하느냐입니다. 인간의 보기에 작게 보여도 그것에 충성을 다했다면 하나님은 큰 일꾼으로 기뻐하실 것입니다.

1년간 신혼여행으로 깨달은 “결혼이란 무엇일까”

‘달이와 별이’, 각자의 시선 담긴 같은 제목의 책 출간

평범한 크리스천 신혼부부가 1년 동안 신혼여행을 하고 같은 제목으로 서로 다른 관점에서 ‘결혼이란 무엇일까’에 대한 책을 나란히 펴냈다.

파란색과 분홍색 표지의 <결혼이란 무엇일까?>는 무려 357일간 신혼여행을 하고 돌아온 크리스천 남편 달이(정재현)와 아내 별이(이사랑)의 ‘같은 제목 다른 내용’의 두 책이다.

같은 1년간의 신혼여행을 토대로 쓴 글이지만, 전문 작가인 남편 책의 분량이 두 배 가까이 많고, 그래서 가격도 좀 더 높게 책정됐다. 둘의 1년간 일기를 모았으며, 참신한 기획이 돋보인다. 같은 사건을 남과여, 남편과 아내가 어떻게 바라보고 받아들이는지를 읽어보면서 신혼부부 또는 부부, 남여 간의 심리를 비교할 수도 있다. 여행 초기부터 말미까지, 두 사람의 ‘변화’를 지켜보는 것도 흥미롭다.

부부 저자는 “3박 4일 신혼여행이라면 천국이겠지만, 1년이라면 어떻게?”라는 흥미로운 질문을 짚은이와 신혼부부들에게 던지고 있다. 부부는 연변, 캄보디아, 태국, 인도, 라오스,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 지역을 1년간 함께 여행했다. 부부 저자는 “1년 신혼여행이라면 초콜릿을 트럭째 선물받는 것처럼 생각하기 쉽지만, 그 속에는 쓴 속도 있고 입이 얼얼한 생마늘도 있으며, 눈에 매운 양파도 적지 않았다”고 고백한다.

1년간의 여행기로 볼 수 있지만, 내면적으로는 부부 두 사람 안에 있는 기쁨, 기쁨, 감격, 고통, 분노, 슬픔 등의 감정을 여행한 것이라고 저자들은 말한다. “신혼의 때에는 배워야 할 감정의 과목들이 있었다”는 것. 많은 사람들이 3박 4일이나 1주일 신혼여행을 하고 돌아와서 행복한 순간만을 가슴에 담아두지만, 달이와 별이는 깨가 쏟아지는 이야기들보다는 갈등과 다툼 등 애써 감추고 싶어하는 것들도 여과없이 드러냈다. 부부 저자는 “아직 결혼이라는 숲으로 들어가지 않은, 혹은 막 들어선 분들에게 작은 등불이 되고 싶었다”며 “우리의 쓴 맛이 독자들에게는 약이 되기를 바라며 펜을 들었다”고 했다.

또 “신혼부부의 갈등은 서로 다듬어져 가고, 둘이 하나를 이루는 필수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라며 “갈등을 찬양하는 것은 아니지만, 갈등의 계단을 오르락내리락하



결혼이란 무엇일까 아내 별이(이사랑) 남편 달이(정재현) 주의 것 | 200쪽 · 352쪽

며 양보하는 법과 이해하는 법을 배우게 되지 않을까”라고 전한다.

이들은 “하나님은 실수와 연약함이 있는 나에게도 은혜를 베푸신다. ‘좋은 이미지’의 풍선 속에 숨어야 우리를 좋게 봐주시는 분이 아니다”며 “그렇다면 신혼의 고난을 이야기해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다 아시면서도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성숙의 길로 인도하신다면 신혼부부의 갈등과 아픔의 이야기도 소망과 감격의 고백으로 다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남편 달이는 “다툼과 갈등, 자신의 부족함을 드러내는 것은 부끄럽고 두려운 일이지만, 그것은 글 쓰는 사람이 마땅히 걸머져야 할 사자가”라며 “저자의 아픔이 독자에게는 살림이 되고, 저자의 고생이 독자에게는 활력이 되니, 저자는 쇠하고 독자는 흥해야 한다”고 했다.

아내 별이는 “해피엔딩의 결혼을 꿈꾸는 것은 비웃음받을 일인지 모르나, 사실 그것은 무척 바람직하고 좋은 일”이라며 “모든 결혼은 아직 엔딩이 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엔딩이 오기 전까지는 항상 희망이 있고, 그 희망을 따라가다 보면 아름다운 결말이 온다는 것이다.

달이는 “한국에서 가장 많은 힘을 쏟는 부분은 ‘돈’인데, 그 힘의 절반의 절반만이라도 ‘사랑’에 쏟는다면 어떤 투자보다 확실한 삶의 풍요를 보장할 것”이라며 “새로운 투자자

들이 나타나야 할 때”라고 했다.

이들은 왜 1주일, 길게는 한 달이면 되는 신혼여행에 1년을 통째로 바친 이유에 대해 “1년 신혼여행은 미래를 위한 투자였다”며 “한 달간 유럽으로 여행을 가도 가이드 책을 몇 권은 읽어보는데, 결혼이라는 평생의 여행을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책을 읽어야겠느냐”는 것이다. 1년간 돌만의 장소에서 결혼에 관한 책을 함께 읽다 보니, 이렇게 결혼에 관한 책도 함께 쓰게 됐다고 한다.

신혼여행이라고 1년 내내 먹고 놀기만 할 순 없는 법, 달이와 별이 부부는 성경을 읽고 책을 보며 서로 알아가는 시간을 많이 가졌다고 한다. 둘은 “1년간의 신혼여행이라고 하면 사치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한국에서 드는 생활비보다 적게 들었다”고 말했다.

달이는 “1년 신혼여행이란, 아내를 사랑하겠다는 애초의 결단이다. 시간이 남아돌기에 1년이 아니요, 돈이 넘쳐나기에 1년도 아니다. 시간이 아깝기에 1년이 더 의미 있고, 돈이 넉넉하지 않기에 1년이 더욱 장하다”며 “할 수 있어 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으나, 할 수 없어 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없다. 누구나 할 수 없는 사랑을 하고, 누구나 하지 않을 사랑을 하자, 아내에게라면, 당신에게라면”이라고 고백하고 있다.

부부 저자는 “이 책은 여행기라고 하면 여행기이고 아니라면 아닌데, 여행기라고 하면 그것은 내면의 여행, 관계의 여행이라는 의미에서 그러하다”고 했다. 단순한 여행정보가 아닌, 결혼생활에서 느끼는 감정정보, 관계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집필하였다는 것이다.

평범한 신혼부부라고 했지만, 부부의 직업은 평범하지만은 않다. 현대음악과 기독교학을 전공한 달이는 세계 20여 나라를 자전거로 여행했고, 일곱 권의 저서가 있다. 특히 이용도 믿음확연구소를 설립하고故 이용도 목사의 신앙과 삶을 복원하는 일에 힘쓰고 있다. 별이는 개신교 수도원에서 지내던 중 달이를 만나 결혼에 이르렀다. 이대웅 기자

북한간부의 하나님을 만나기까지와 순교한 스토리
- 우리들의 회개와 동족들의 마음을 얻어 통일의 꿈을 줄 두 권의 책 -

- 구입: 미주두란노와 기드온동족선교회 (\$20/권당)
- 문의: (425) 775-7477, www.gideonbrothers.org
gbmwusa@gideonbrothers.org (온라인주문가능)
- 주소: GBMW (체코오더명과 우편수취명 동일)
16825-48th Ave, W, #345 Lynnwood, WA 98037

복음주의의 6가지 지배적 확신 그리고 근본주의와 자유주의

<복음주의와 기독교의 미래>



복음주의와 기독교의 미래 알리스터 맥그래스 정성욱 역 | IVP | 288쪽

양육, 친교, 성장을 위한 ‘기독교 공동체의 중요성’.

이 여섯 가지만큼 중요한 것은, 저자의 말처럼 복음주의가 “이 여섯 가지를 제외한 다른 문제들은 관용과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다루어야 할 ‘부차적인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근본주의·자유주의와의 결정적 차이점이다. 그리고 “여섯 가지 확신에 동의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여기에 어떤 복음주의자들은 덜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나 어떤 복음주의자들은 오류이거나 정당화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믿음과 실천의 부차적 조항을 덧붙이고 싶어할 수도 있다.”

저자는 이 책의 마지막 부분에서 ‘복음주의와 기독교의 미래’를 논하고 있다. 비록 20여년 전 쓰여진 작품이지만, 130년 역사의 우리나라 기독교가 서구의 그것에 비해 다소 시차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사회정의와 공공 정치 등에 있어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절한 내용이 적지 않다.

“복음주의는 도전에 직면해 있다. 지속적 성장, 증가하는 지적 세련화, 그리고 교회 내의 커져가는 수용 등에 복음주의는 제대로 대처할 수 있을까? 아니면 복음주의는 특유의 생각과 강조점을 잃어버릴 것인가? 복음주의자들이 자신들의 신앙의 진정한 매력과 독특성을 이해하는 데 이 책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체적으로는 복음주의의 미래에, 일반적으로는 기독교 신앙의 미래의 안녕을 확보하는 데 작게나마 기여한 것이리라.”

저자는 “복음주의가 다음 세대에 서구 기독교에서 지적이나 영적으로 우위를 점하게 되리라고 믿는다”며 “하지만 그러기 위해 먼저 바람직하지 않고 신학적으로 미심쩍은 것들을 제거하고, 최근 드러나고 있는 약점들에 적절한 주의를 기울이는 철저한 자기점검이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모더니즘(근대성)에 기초한 자유주의와 근본주의를 반대 또는 극복하면서 ‘대세’로 떠오른 복음주의는 21세기 포스트모더니즘과 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도전 앞에서 서다. 그리고 복음주의가 경계한 자유주의와 근본주의도 언제든 우리에게 다시 휘말릴 수 있다. 우리 복음주의자들은 이 ‘사용 설명서’를 지도와 나침반 삼아 ‘세계 기독교 시대’를 개척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대웅 기자

숨겨진 20야드를 찾아드립니다

골프클럽의 성능 70%는 샤프트에 달려 있습니다

위텍골프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나만의 名品 클럽을 가져 보세요!



세상에 오직 하나... 당신만을 위한 맞춤클럽

Private Lesson

단기간 집중 골프스윙 완성 (스크린 통한 구질 분석, 자신의 스윙을 모니터로 보며 교정)



위텍골프 피팅 스튜디오

213.327.4080 / 213.315.5179 3050 W. 7th St #101 Los Angeles, CA 90005 월요일~금요일 9:30~7:00 토요일 사전예약 Only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Classified AD

헤밀리자동차 그룹
 www.alexkimtrading.com

대표전화 323.737.5900
 David Kim 213.703.7077

중고차의 황제
 출장방문 가능, 일요일도 오픈
 933 S. Western Ave, LA, CA 90006

빠른 송금·환전 빠른 송금·환전
 송금 송금·환전 송금 송금·환전

미국 <.....> 한국 ₩

7 Days 24 Hours T.(213)400-6363

CD PRINTING
 323.265.0244 junimmedia@gmail.com
 www.junimmedia.com

교회학교, 부흥회 시디앨범, 신학교 강의 오디오북 소량, 대량 모두 제작이 가능합니다.

프린트CD + CD봉투 + 라벨
 1,000장 \$350
 3,000장 \$950 (3천장 이상시 디자인무료)

\$160 (디자인 포함)
 Retractable Banner \$140
 Stand X-Banner \$65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골드핑거
 T.213.386.5858

직접재단/직접재봉/남녀맞춤/명품 옷수선
 Master Tailor 김병호

975 S. 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헤어컷 특강

미용을 배워 선교하는데 사용하실 분들을 위해 특강을 엮습니다.

- 대상: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사용하실 분 (현재 프로미용인도 OK)
- 회비: 월 \$10
- 강사경력: 전 국가대표 선수권자
- 문의: 213.392.2323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9가 로데오 갤러리 몰
오페라 하우스 베이커리
 교회행사용

CAKE, 빵 주문시 SALE

케익 및 빵 단체주문 환영

T.(213)384-1999 operahousebakery@gmail.com
 833 S. Western Ave, #38, LA, CA 90005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www.easy2424.com
 한국식 포장이사 가능

귀국·시내·타주이사·차량운송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무료 전화 (877)580-2424
 (310)538-3333

18118 S. Broadway St #B., Gardena, CA90248

리프팅 라인·지방분해

최신장비도입
 *리프팅 라인 4회 \$999
 *부분지방 분해 5라인 8회 \$999

초스피드 다이어트
 1달에 7파운드~25파운드 감량

- 각종 피부병과 아토피
- 습진 화농성 여드름

치아 파우더 3대째 기업으로 이어온 영선한의원
 잇몸 시큰거림 풍치예방 3달분 \$60

배 빠는 속변약!
 먹으면서 체중을 줄이고, 몸 전체에 부종이 빠지는 약
한달 \$50

영선한의원 Young Sun Acupuncture & Herbs Clinic (213)380-7800
 각종보험취급 (교통사고 전문 병원)

LA MEDICAL CENTER 3663 W 6th St, #308 Los Angeles CA 90020(6가와 아드모어)
 영업시간 : 월~금:10시~5시 / 토 10시~2시

혈당수치가 내려가면 행복지수가 올라갑니다
 식후 혈당 억제를 도와 혈당 걱정 없는 인생, 이제 프로지로 활짝 웃으세요.

프로지 PRO-Z

혈당수치 조절 및 혈당관리의 시작
 나이와 상관없이 젊어지고 싶으십니까.

일본의 전국 약사 1,000명에게 당뇨병 신자식을 가르치고 있는 가사하라 도모코 약사의 저서 "당뇨병, 약을 버리고 아연으로 끝내라" 에서 미네랄의 하나인 '아연'에 당뇨병 치료의 열쇠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비타민이나 미네랄이 부족해서 고혈당이 되었다면 당뇨약을 먹거나 식사량을 줄이는 것만으로는 증상이 개선되지 않는 게 당연하다.

인슐린은 혈액 중의 포도당을 세포에 들여보내서 높아진 혈당을 낮추는 작용을 하는 유일한 호르몬이다. 이러한 인슐린의 작용에 아연이 꼭 필요하다. 아연이 부족하면 혈당 조절 기능이 나빠지고, 합병증의 위험성이 커진다.

프로지의 특별함은 아연(Zn)의 흡수력과 지속력

송문기 박사의 세계적 특허 Cyclo-z 관련 기술이 적용되어 귀하의 체내 아연(Zn) 흡수력과 지속력이 혁신적으로 증가됩니다. 이제 활발한 아연대사(Zinc Metabolism)가 가져다 주는 변화를 직접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임상실험이 입증하는 프로지의 효능!

40년간 Zinc Metabolism을 연구해온 송문기박사는 아연이 근육세포의 당대사와 체장 베타세포의 인슐린 반응도에 깊게 관여 되는 사실에 주목하여, 아연에 CHP를 첨가한 신합성 물질(CHP Plus Zinc) 프로지(PRO-Z)를 개발했습니다. 정부 연방 병원인 US VA Hospital에서 47명의 당뇨환자를 대상으로 12주동안 프로지(PRO-Z)를 복용한 결과 당화혈색소(HbA1c)가 평균 22%감소, 70% 환자에서 혈당 수치가 29% 개선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Source: Metabolism, Vol 47, No 1(January, 1998: pp 39-43) 미국특허 # 5,411,748 and #5,997,908

아시나요?
 당뇨 치료, 당뇨의 근본적 개선을 위한 첫걸음

당화혈색소(HbA1c) 1% 줄이기에서 시작됩니다
 혈당수치를 조절한다고 치료되는 것이 아닙니다.

당화혈색소를 1%만 줄여도 43% (하지절단) 37% (미세혈관병증등) 줄어듭니다

당화혈색소(HbA1c) 조절목표는 **6.5%**

송문기 박사, 그는 누구인가?
 * 코카데로 세이 과학자 송문기 박사
 * 40년간 당뇨병, 비만, 고콜레스테롤, 만성염 연구
 * 니코틴, 생화학, 생리학 분야 연구
 * 미 연방재정연구원, 개발센터 수석 연구원들

1병 \$69+Tax
 3병 \$180+Tax
 6병 \$350+Tax

핵심은 아연의 흡수 (CHP 특허물질 아연의 흡수율이 획기적으로 증가)

213.434.1170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www.prozusa.com / prozusa1@gmail.com

PRO-Z USA Inc. 미국 공식 판매처



이 교회에 새겨진 수탉



베드로 통곡교회의 모습



교회의 입구

■ 영성으로 가는 성지순례 이야기(71)

닭 울음 소리-베드로 통곡교회

베드로와 닭 울음 소리

시온산 중턱에는 꼭 한 번 둘러보아야 할 명소가 있다. 다윗왕의 무덤을 나와서 남쪽 기슭을 향하여 내려오다 보면 특이한 지붕의 모습과 장식이 있는 교회를 만난다. 닭이 금방이라도 울음을 토해낼 것 같은 우람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 교회 지붕을 차지하고 있는 닭은 베드로의 주님 부인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베드로 통곡교회는 대제사장 가아바의 집터로 보여지는 곳에 세워진 교회이다. 닭 울기 전 3번 주님을 부인한 베드로의 모습(마26:69-75)이 그려진다.

버스에서 내려 곧장 교회로 가지 말고 키드론 골짜기(Kidron Valley)와 힌놈(Gehenna) 골짜기가 보이는 전망대로 가보자. 날이 좋으면 사해가 얼핏 보이기도 한다. 전망대에서 왼쪽으로 보이는 골짜기가 힌놈 골짜기이다. 닭장으로 이루어진 교회 건물군이 보이는데 이곳은 '아켈다마,' '피밭'이다. 바로 가롯 유다가 성소에 은을 던져 넣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 곳이다.(마27:3-8)

전면에 보이는 지역은 실로암 연못이 있는 실로암 지역이며 골짜기는 키드론 골짜기이다.

골짜기 건너 언덕마을은 멸망산으로 솔로몬의 후궁들이 살았던 곳이다. 실로암 연못 위쪽은 다윗의 도시이며 다윗과 밧세바가 만났던 유적지가 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는 예루살렘 옛 성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자, 이제 전망대를 나와서 교회 쪽으로 가보자. 웅장하게 보이는 이 교회는 로마 천주교회로서 성모 승천 수도회(Augustinians of the Assumption)에 속한 교회이다. 이 교회는 가아바 대제사장의 집터 위에 세워진 교회로서 AD 457년 처음으로 건축되어졌으나 1010년 이슬람 군대에 의하여 파괴되어졌고, 이후 1102년 십자군에 의하여 재건되었다. 1320년 교회는 다시 무슬림에 의하여 파괴되고 1931년 9월 11일에 로마교회에 속한 프랑스 성모 승천 수도회에 의하여 다시 봉헌되었다. 2000년에 들어서 이 교회는 재단장을 하게 된다. 지금 보이는 교회의 아름다운 외관과 내부의 모습은 최근에 들어 새로 단장한 것이다.

아름다운 교회 안에 숨겨진 동굴감옥

교회 안으로 들어가면 아름다운 조각 그림들이 성경에 나타난 당시의 상황들을 보여 주고 있다. 신문 당하시는 예수님. 불을 쪼면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베드로, 관원들과 대제사장 그리고 제자들의 모습에서 당시의 긴박했던 상황들을 알 수가 있다.

예루살렘에 있는 천주교회 중 본당이 가장 아름다운 교회라 할 정도로 화려한 색채의 모자이크가 순례객들의 눈길을 끈다.

수도회에서 주관한 고고학적 발굴 작업에서는 예수님 시대의 이스라엘 전통적 연자 매트, 안뜰 하인들을 위한 주거 동굴과 물 저장시설, 감옥으로 사용하였던 지하시설들과 비잔틴 시대의 교회 유적들이 발굴되기도 하였다.



서병길 목사 전 GMS 파송 이스라엘 선교사 폴리스학교 선교목회학 박사

본당에서 계단을 타고 중간 예배당으로 내려가 보자. 이 중간 예배당 입구에 우물처럼 생긴 것이 보이는데 이것이 바로 감옥으로 밧줄을 타고 내려가는 통로이다. 주님이 이 우물같이 생긴 감옥에서, 철쭉같은 어둠의 땅에서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모습을 시편 88편을 통하여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작은 구멍을 통해 중죄인들이 밧줄에 달려 지하 감옥으로 내려갔던 것이다.

다시 계단을 타고 지하로 내려가 보자. 지금은 지하 감옥까지 내려갈 수 있도록 해 놓았다.

먼저 일반 죄수들이 있었던 감옥을 둘러보고 다음에는 중죄인이 들어갔던 사방이 딱 막힌 바위굴로 들어가 보자. 한눈에도 답답해 보이는 이곳에서 주님은 빌라도 법정에 가기 전 종교적 재판에 가아바로부터 받으셨다.

이곳의 상황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성경은 시편 88편이다. 순례객들은 이곳에서 시편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고난에 대하여 이해를 할 수 있다. 시편 88편은 우리의 마음을 무겁고 답답하게 하지만 우리에게 또한 빛의 소망을 주기도 한다.

새벽의 눈물

이제 다시 교회 밖으로 나가보자. 베드로가 바깥뜰에 앉았다가 한 종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세 번 부인했다. 그 새벽에 닭은 울었고 베드로는 이에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말씀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였다.(마26:69-75)

지금 이 장소에는 베드로가 불을 쪼던 모습과 종들의 모습, 그리고 로마 군병들의 모습이 조각되어 있는 동상들을 볼 수 있다. 이 동상들의 하이라이트는 동상 위에 우뚝 선 닭의 우렁찬 울음 모습이다. 베드로의 울음과 닭의 회치는 소리가 아직도 들리는 것 같은 착각에 빠져 보기도 한다.

베드로는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세 번을 장담하고 꼭 세 번을 부인하였다. 저주와 맹세까지 하면서 말이다. 무슨 말이 필요하랴. 베드로의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인 것을... 우리는 절대 맹세하지도 절대 부인하지도 말자. 그저 조용히 주님의 고난을 따르며 영광스런 주님의 길을 따라가자.

동상 아래쪽으로 옛 유적지의 모습이 조금 보이고 골짜기로 내려가는 돌길이 보이는데 이 길과 돌들은 옛날 것 그대로라고 한다. 주님께서 최후의 만찬 후 셋새마네로 내려가셨던 길이기도 하다.

저 멀리서 주님이 셋새마네 동산 기도 후 잡히셔서 군병들에게 밧줄에 묶어 힘없이 끌려오시는 모습이 눈에 선하게 그려진다. 오늘 우리는 이 마당에서 서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 없음을 주님의 고난에 함께 하지 못하는 비겁함을 경계하며 마음의 끈을 다시 잡아매어 보자.

(계속)



감옥으로 내려가는 통로



교회의 내부 모습

미주 크리스천 신학 대학교(원) 신입생, 편입생 모집

본교 지원시 특전

- 1) 기독교 복음 선교 연합 총회(미주내), 개척 장로회 한미 연합 총회(한국과 미주) 에서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2) 대학(BA)과정이나 교역학 석사(M.Div) 과정 지원자는 첫 등록학기에 80%의 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3) 본교는 미국 신학교 협의회에 가입된 회원 학교입니다. 서로 학점 교환이 가능합니다.

신학대학교
신학과(B.A) | 126학점

신학대학원

- ◎ M.Div 교역학 석사과정 | 96학점
- ◎ M.A 석사과정 | 48학점
- ◎ Th.M 신학 석사과정 | 48학점
- ◎ D.Min 목회학 박사과정 | 48학점
- ◎ Th.D 신학 박사과정 | 56학점

입학상담: 213-272-6031

미주 크리스천 신학대학교(원)
Christian Theological University in America
276 S. Rampart Blvd.L.A, CA 90057

고화순목사 초청 성령치유회복 부흥성회

고화순 목사
실로암복지재단이사장
도봉산 광명기도원 원장
실로암수양관 원장
세계교회 부흥선교회 기도분과 회장
N.Y 국제 선교부총재
사랑의 집짓기운동 이사전국기도원연합회총회장

2018년 4월 25일 수요일 오후 7시
나눔과 섬김의 교회
276 S. Rampart Blvd.L.A, CA 90057

“사회참여? 십자가 영성 지니면, 사회 전체가 변화”

십자가 영성 주제로 김명혁 목사-김영한 박사 대담

‘가난과 고난과 죽음의 십자가 영성을 영원하며’라는 주제로 김명혁 목사(한복협 명예회장, 강변교회 원로)와 김영한 박사(기독교학술원 원장, 살롬나비 상임대표)가 4월 20일 오전 서울 도곡동 강변교회(담임 이수환 목사)에서 개최했다.

인터넷방송 21tv 주최로 열린 대담에서는 김명혁 목사와 김영한 박사의 간략한 발표 후 김철영 목사(세계사회화운동본부 사무총장) 사회로 대담이 진행됐다. 21tv는 김명혁 목사와 함께 지난 달부터 매달 한 차례씩 다양한 주제로 명사 초청 대담 행사를 열고 있다. 다음은 대담 내용.

이 시대에는 가난과 고난이라는 것이 쉽게 다가오지 않는다. 오히려 반대되는 안일함과 안주, 편안과 편리 등을 따라가고 있어, 십자가 영성을 닦아가는 것이 어렵다.

김명혁 목사: 십자가 영성을 지닌다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이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감옥에 가시는 아버지를 바라보며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감옥에 가야 한다’고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됐다. 평양을 떠나기 전, 주기철 목사님의 순교를 경험했다. 이러한 순교 신앙을 지녀야 하는데, 요새 젊은이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풀리캅 감독이나 토마스 선교사님처럼, 주기철 목사님의 일사각오나 죽음을 소원한 손양원 목사님처럼 순교 신앙과 십자가 영성을 가져야 한다. 그들이 정진 나간 것인가? 아니다. 우리가 정진 나간 것이다. 이 길을 따라간다면 사회도 조금씩 바뀔 것이다.

이 세상의 유행과 가치관을 버리고, 예수님과 신앙의 선배님들의 가치관을 따라야 한다. 이런 영성이 여겨지거나 일어나려면, 저도 자격 없지만 그렇게 죽을 수 있다면 좋겠다.

김영한 박사: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비난받고 있는가? 신앙의 선구자들이 갔던 ‘고난과 자기 비움의 길’을 가지 않고, 기독교를 단순한 제도와 변역의 종교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도자는 참으로 그리스도처럼 섬기고 모범적으로 그 길을 보여줘야 하는데, 하나의 자기 변역이나 성공의 도구로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사회를 위해 할 말이 없는 것이다. 교회가 아무리 커도, 사회의 지성인과 양심들에 먹이지 않는, 결만 커버린 껍데기가 돼 버렸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한국교회가 가난과 고난과 죽음이라는 십자가

의 근본 정신을 지도자들부터 다시 한 번 본받아야 한다. 교회의 제직이나 장로들도 목사에게 ‘교인이 늘지 않는다’고 압력을 가해선 안 된다. 그러면 설교가 그런 방향으로 가게 된다. 교인이 줄더라도 바른 십자가의 정신, 가난과 고난과 죽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한국교회가 자기 정체성을 찾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는 길이다.

-교회가 점점 사회와 담을 높게 쌓아가고 있다. 교회 내부에서도 가난과 고난과 죽음의 문제가 그렇게 심각하게 다가오질 않는다. 그러나 교회 담장만 넘어서도, 사회에서 절박하고 절실하고 순간 순간 가난과 고난과 죽음의 문제로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많은데.

김명혁 목사: 사회는 지도자들의 영향이 미쳐서 변화된다. 성 프란치스코를 보라. 손양원 목사의 순교 신앙도 프란치스코에게서 배운 것이다. 프란치스코를 이야기하면 자주 가톨릭이라고 말하는데, 손양원·한경직 목사님이 그를 따랐다. 대어섯 명만 있어도 된다. 평양대부흥 당시 김선주 목사님과 함께한 대어섯명이 당시 조선을 변화시켰다. 십자가 영성을 지닌 분들이 곳곳에 열 명만 있다면, 사회도 정치도 다 변할 수 있다.

김영한 박사: 이 말씀을 신학적으로 다시 풀어 보자면, 여태까지 복음주의권의 영성은 ‘개인 구원’에 있었다. 내가 중생해서 천국 가는 개인주의적 차원의 영성만 생각한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영성의 한 부분이지, 성경적 영성의 전체는 아니다. 사실 사머니즘이야말로 개인적 차원의 영성이다. 성경적 영성은 개인적 중생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회적, 우주적 영성으로 나아가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한 개인뿐 아니라 이 세상을 바라보셨다.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생각하면서도,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다고 하셨다. 단순히 개인의 구원만을 이야기하지 않으신 것이다.

진정한 기독교 영성이란,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뒤 사회로 나아가 그 사회를 변혁시키는 것이다. 그것을 잘 해낸 사람이 제네바의 칼빈과 영국을 부흥시킨 웨슬리이다. 사회적 성화 말이다. 한국교회도 단순히 교회 자체의 확장에서 그치지 말고, 교회가 어떻게 사회를 향해 빛을 발하고 소금이 되어 녹아들어갈 것인지 생각해야 한다. 사회적 성화가 이뤄질 때 비로소 교회는 사회를

향해 발언할 수 있고, 진정한 소금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예수님도 가난한 자와 병든 자들, 소외된 이웃에게 다가가셨다. 십자가의 영성도 말씀처럼 개인적 차원을 넘어 공동체적 차원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 김명혁 목사님의 그 시절 평양 이야기도 듣고 싶다.

김명혁 목사: 더 이상 하나의 주장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십자가의 영성을 지녀야 한다. 그러면 사회가 변한다. 스테반 집사 하나가 순교하면서 기뻐하고 감사했을 때 사도 바울을 통해 세계가 변했다. 스테반의 기도가 없었다면, 사도 바울도 없었을 것이다. 스테반을 통해 안디옥 교회가 생겼다. 가이사라에서 고넬료 한 사람이 기도하고 구제했더니, 그 사회가 변했다. 루디아가 복음을 받아들였더니, 빌립보 사회가 변했다.

사회참여를 굳이 말할 필요가 없다. 십자가 영성을 지니고 있으면, 사회 전체가 변화한다.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죽음으로써 로마가 변하지 않았다. 일본은 한국도 한국교회도 싫어하지만, 손양원 목사님은 그렇게 존경한다. 거기서 배우는 것이다. 사회참여는 자연스럽게 이뤄질 것이다.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영성을 지니면 사회가 변화한다.

평양 교회는 주일 성수, 순교 신앙, 새벽 기도 3가지를 붙들었고, 철야 기도와 금식 기도도 있었다. 요새 주일 성수를 중요시하지 않는데, 타락한 것이다. 김선주 목사님이 새벽 기도를 하다 평양대부흥이 일어났다. 이게 기본이고, 이것에 붙잡힌 교회들이었다.

북한에 갔을 때 당시를 생각하면서 매일 거리로 나갔다. 공산당이 매일 쫓아다니면서 경고했지만, 닷새 동안 평양 시내를 매일 걸어나니 그때를 회고했다. 지금도 지하교회에 교인들이 있다고 한다. 옥한흠 목사님이 ‘진짜 교회는 북한과 중국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일으킨 교회가 될 것’이라고 한 적이 있다.

김영한 박사: 그러한 공동체가 되려면, 먼저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와 장로 등 지도자들의 메시지와 사고방식이 ‘예수 믿고 복 받는다’는 기복적 신앙이 아니라, 섬김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 진정한 지도자라면 섬김 받는 것이 아니라 섬겨야 한다. 예수님께서 먼저 가난해지고 고난을 받지 않으셨나.

영성의 본질이라는 것이 바로



왼쪽부터 김철영 목사, 김명혁 목사, 김영한 박사. ©이대웅 기자

자기 비움과 섬김이다. 단순한 개인 구원이 아니라, 노예 해방을 꿈꾼 선조들이 있었다. 영광의 예수님 이전에, 그러한 자기 비움과 섬김과 십자가가 있었다. 십자가를 통한 부활,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다. 한국교회를 섬기는 우리가 자기 비움과 섬김을 모범화하고 체질화해야 한다.

김명혁 목사: 섬김에 대해 한 말씀 더 드리고 싶다. 예수님께서 지니신 영성은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존 스토틀 목사가 예수님의 삶을 가장 잘 표현한 구절로 꼽았다. 예수님은 모든 병자들을 만지시고, 낮아져서 따뜻하게 섬겼다. 그러다 마지막에 죽음을 맞으셨다. 섬김이 중요하다. 성령께서 이를 도우실 것이다.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회개하고 나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닮으려 하면, 몸이 자연스레 그렇게 움직일 것이다.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이 너무 분주하다. 수도원적 영성이 필요하지 않을까.

김명혁 목사: 사도 바울도 지식과 가문을 너무 귀중히 여겼지만, 배설물 같이 버렸다. 성 프란치스코도 지식이 방해가 되면 버리겠다고 했다. 수도원보다는 한국교회의 무디이자 예레미야였던 이성봉·김치선 목사님처럼 ‘산기도’를 할 수 있다. 김치선 목사님은 자주 산에서 기도하셨다. 오늘 우리도 하루 일을 쉬고 산에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 수도원까지 가지 않더라도, 비슷한 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때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부흥회를 했다. 한주 내내 참석하면서 귀하게 들었다. 선배님들이 지녔던 영성이 필요하다. 예수님처럼 산에 가서 기도해야 한다.

김영한 박사: 장소 이동도 필요하겠지만, 때로는 자기 목사관에서, 서재에서 휴대전화만 꺼놓아도 된

다. 그렇게 하나님과 자주 만나야 한다.

-예수님을 고백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이 시대에 가난과 고난과 섬김과 죽음의 십자가 영성을 잘 따라가면서 예수님 닮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어떻게 권면해야 할까.

김명혁 목사: 원칙적으로 하면 철저한 주일 성수가 먼저다. 영원히 계속될 것은 예배밖에 없다. 주일 저녁예배에 안 오면 집사 그만두라고 야단을 치곤 했다. 그리고 회개 기도를 하고, 새벽 기도를 해야 한다. 조금 나아가면 교제와 섬김이 있다. 강변교회 목회 당시 ‘교제와 섬김’을 표어로 삼았다. 혼자 기도하지 말고 옆 사람들, 그리고 불쌍한 사람들과 교제해야 한다. 서로 돌아보고 기쁨으로 섬겨야 한다. 주일 성수, 회개 기도, 새벽 기도를 철저히 해야 하고, 교제와 섬김이 뒤따라야 한다.

김영한 박사: NGO 성격의 살롬나비를 8년째 하면서 느끼는 것이 있다. 역사적으로 많은 사회운동이 복음을 통해 나왔다. 그러나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가 중요함을 느낀다. 그렇지 않으면 단순한 사회운동으로 끝나기 때문이다.

하나님과 만날 수 있도록 성경을 읽거나 영적으로 공급을 받아야 이웃을 사랑할 마음이 생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것이다. 두 가지가 같이 가야 한다.

1974년 로잔 언약에서도 하나님 사랑과 사회적 섬김이 처음으로 같이 나왔다. 중요한 것은 이웃을 위해 섬기고 자기 자신을 비울 수 있는 진정한 힘이 자기 의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으므로 그 은혜에 감동하여 끊임없이 그 힘을 공급받겠다는 것이다. 그게 아니면 일정 시간이 지나 메달라 없어지거나, 인간적 운동으로 끝나버리고 말 것이다.

이대웅 기자

2018 미주기독교대학박람회

IRUS
(International Reformed University & Seminary)

- ABHE 정회원
-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총회 (총회장 김진규 목사)
- WKPC(세계한인예수교장로회) 인준 신학교
- I-20 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 ESL, 학사, 석사, 박사과정

125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4
Tel: (213)381-0081, FAX: (213)381-0010
www.irus.edu, office@irus.edu

미성대학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 ABHE 정회원, ATS 준회원
- 기독교학위(BA), 목회학석사(M.Div), 상담학석사, 선교학석사, ESL, TESOL
-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자체 발행
- 인수 후 미주 및 한국에서 사역 가능
- 목회학박사 과정 신설
- 입학상담: 조성호 박사 116261227-3454

미래를 책임지는 미성대학교
총장: 류종길 박사, 이사장: 김광렬 목사
1818 S. Western Ave, #409, Los Angeles, CA 90006
Tel: (323)643-0301 Fax: (323)643-0302
www.aeu.edu/info@aeu.edu aeuimaster@gmail.com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CHONGSHIN UNIVERSITY THEOLOGICAL SEMINARY

캘리포니아주교육국(BPPE)인준 정식 학위 수여
수시입학(통신가능),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모집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에서 강도사 거쳐 목사 안수
모든 민족국제복음주의 총회에서 목사 안수
총장: 이동규 박사 학장: PASTOR YOUNG CHOI

978 S. Hoover St #201, LA, CA 90006
T: (213)386-0300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해외한인장로회 총회 직영신학원
(한국 장로회 통합측 목사고시, 안수가능)
I-20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15605 Carmen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926-1023, 4691 Fax: 562-926-1025
www.ptsa.edu

미주총신대학교
CHONG SHIN UNIVERSITY IN USA

개혁주의 신학의 전통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
21세기 교회와 세계 선교 사명을 이끌어 갈
사명자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2975 Wilshire Blvd. #3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487-1010 e-mail: info@chongshinus.edu
www.chongshinus.edu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 TRACS 정회원 인준
- 특 전: Sevis I-20 발행 /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 장학제도
- 성경학 학사 (B.A. in Biblical Studies)
- 목회학 석사 (Master of Divinity)
- 종교학 석사 (Master of Art in Religion)
- 목회학 박사 (Doctor of Ministry)

2660 W. 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 (714)527-0691(0692) Fax: (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

솔로몬대학교

땅끝까지 제자를 삼아 복음을 전하자 (마태복음28:18-20)

총장: 백지영 박사 부총장: 브랜트 프라이스 박사
4055 Wilshire Blvd. #306~308, LA, CA 90010
Tel: (213)381-7755 Fax: (213)381-5055
http://solomonuniv.org/

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

ABHE, TRACS, ATS 정회원
미국 주류 신학교 학점 인정 및 편집학
온캠퍼스 & 온라인 프로그램
신학, 목회학, 기독교상담학 학사/석사/박사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Tel: 213 388-1000 Fax: 213 385-2332
www.wmu.edu admissions@wmu.edu

캘리포니아 두란노 대학 신학대학원

목회학, 신학, 철학박사 California Tyrannus University
BPPE Ed, code 94874, Sc code 22426
CEO 학감 김호 박사

1008 S. Kingsley Dr., Los Angeles, CA 90006
Tel: 213-507-1933

코헨대학교&신학대학원

With the world!
To the world!

17002 S.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el: 424-257-8176 / Fax: 424-257-8136
www.cohenuniversity.ac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 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대학

신학사(BA), 석사: 기독교 교육학(MA CE),
선교학(MA ICS), 목회학(M.Div), 선교학 박사 (D.Miss)과정
연방정부학자금 보조, I-20, 온라인 강의,
한국어 및 영어 트랙, LA Teaching Site 운영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 (714)525-0088(대표), 515-5885(입학상담)
이메일: admissions@gm.edu www.gm.edu

트럭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만난 하나님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2) - 고려통운 대표 최철영 집사

거대한 트럭들이 즐비하게 서 있는 주차장 너머 작은 사무실에서 고려통운 대표 최철영 안수집사를 만났다. 아직 남가주 지리에 익숙하지 않는 기자가 미리 알리고, 네비게이션에 의지하며 가는 동안 오래 기다린 탓인지 환한 미소로 반갑게 맞아 주었다.

간단한 소개로 시작된 만남은 최철영 집사의 흥미진진한 경험과 간증으로 급세 즐거운 만남이 되었다. 오랜 세월 동안 운송업에 종사한 그는 수많은 사연을 품고 있었다. 어렵잡아 대륙횡단을 250번 이상 했단다. 그가 길 위에 보낸 세월이 수 년에 이른다. 그 솔한 세월을 통해서 빛어진 흥미진진한 이야기들로 오전 시간이 훌쩍 지나버렸다.

성당에서 시작한 신앙 생활

최철영 집사는 초등학교 시절부터 성당을 다녔다. 성당에서 성경을 배우며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고 신앙생활을 시작한다. 물론 종교 생활에 가까운 무미건조한 신앙 생활이었다. 이런 신앙생활은 중, 고등학교 시절을 거쳐 군대 생활을 마칠 때까지 계속 되었다. 비록 무미건조한 종교생활 수준이었지만 어릴 때부터 성경을 알고, 예수님과 하나님 그리고 천국을 알게 되며 성장한 것이 참 고마운 일이다. 지금은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믿고 섬기며 교회를 통한 신바람 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것이 문제!

20대에 우여곡절 끝에 미국으로 이민을 왔다. 미국의 정착은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그 괴로운 시절에는 매일 매일이 두렵고 아픈 가운데 있었다. 아침 해가 뜨면 희망에 가득차고 새로운 기대로 부풀어 야 하는데 청년 최철영에게 매일 아침은 고통의 연속이었다. 절망의 무게를 그늘이 청년 최철영의 가슴을 짓누르고 있었다.

너무 힘든 세월을 너무 힘든 마음으로 보내던 어느 날 아침, '내가 왜 이렇게 힘들까? 이 절망의 어두움을 어떻게 이길까? 이 고통스러운 실타래를 어떻게 풀어 나갈까?' 고민하다가 문득 '아직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구나!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것이 내 인생의 문제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예수님이 없는 자신의 인생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하게 된 것이다. 그

시절 어떻게 그런 기특한(?)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 지금 돌이켜 보아도 대견하다. 그 젊은 시절에 하나님을 향한 바른 소원을 갖게 되었다. "나도 이제 예수님을 만나야겠다."

바로 기도를 품게 된 것이다.

말씀으로 받은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당시 청년 최철영은 대륙을 횡단하는 이삿집 트럭 운전수였다. 한 달에도 몇 번씩 대륙을 횡단하고 있었다. 그 무료하고 힘든 시간들 그의 유일한 낙은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들을 듣는 것이었다. 한인마켓 등에서 획득(?)한 목사님들의 테이프를 듣고 또 들었다. 자신도 모르게 신앙이 성장하고 영적인 지식을 얻게 되었을 것이다. 아마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야겠다!" "나는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품게 되었던 것 같다.

그러던 어느 날 텍사스주 덴튼으로 이주하시는 목사님의 이삿집 서비스를 하면서 목사님의 설교 테이프를 받게 된다. 지금은 성함도 교회도 기억할 수 없는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건넨 설교 테이프가 청년 최철영이 주님을 만나는 계기를 마련해 준다. 목사님의 설교 중에 아직도 생생히 기억나는 두 가지 메시지가 있었다. 아니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스스로 품게 된 기도 제목이 두 가지였다.

두 가지 기도제목은 지금까지도 잊혀지지 않는 너무나 생생한 기도제목이었다. 그 첫째 기도제목이 "내가 누구입니까?"이다. 청년 최철영은 간절히 기도한다. 기나긴 트럭 운행들 속에서 간절히 기도한 것이다. 홀로 있는 공간이니 목 놓아 부르짖는 것이다. 행들을 붙잡고 기도하는 젊은이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시는 주님의 응답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다. 기도 중에 발견하는 자신의 모습은 그야말로 경악스러운 모습이었다. 온갖 죄악으로 물든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 것이다.

말씀을 들으면서 갖게 된 두 번째 기도제목은 "예수님을 알려 주세요!" "하나님을 알려 주세요!"였다. 말씀을 들으며 예수님을 알고 싶은 간절한 소망을 갖게 된 것이다. 부르짖음 끝에 받은 응답은 용서하시는 주님의 모습이였다. 경악할 만큼 추악한 죄인의 모습인 자신을 용서하시는 주님을 만난 것이



최철영 안수집사

다. 은혜였다! 그 은혜에 청년 최철영은 감격한다. 이런 기도들을 통해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면서 주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것이다. 좋은 신 주님과 동행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환란 가운데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도 어려움이 있다. 예수님께서 타고 계신 배에도 풍랑이 찾아 온 것처럼 주님을 만나 동행하는 최철영 집사에게도 시련이 찾아 왔다. 동료들과 함께 꿈꾸며 땀 흘리며 일했지만 큰 실패를 경험한다. 희망에 부풀었다가 좌절 맛보고 큰 아픔에 망연자실하여 주저앉아 있을 때에 하나님은 한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었다. 그 목사님은 존경하고 사랑하는 매형이었다. 매형을 통해 받은 하나님 말씀으로 회복하여 그 자리에서 일어나 찾은 교회가 남가주사랑의교회다.

이렇게 찾은 남가주사랑의교회가 최철영 집사에게는 모 교회가 되었다. 남가주사랑의교회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는다. 그는 기도하는 중에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품고 산다. 2001년의 어느 날 하나님께서 "돈 걱정을 하지 마라!"는 음성을 분명하게 들려 주셨다. 그 후부터 최철영 집사는 돈 걱정은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간다.

최철영 집사는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섬기며 살아야 하면 하나님께서 충분히 채워주신다'는 확신이 있다. 그리고 그는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산다. 그는 늘 봉사의 기회를 찾고, 교회에 무엇이 필요한가를 본다. 교회 일꾼의 마음이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헌신에 신실하게 응답하신다.

소원과 삶의 현장을 담은 기도

인터뷰를 마무리하면서 기자는 기도제목을 물었다. 마치 기다린 듯이 기도 제목을 쏟아냈다. 평소 애용 기도한다는 증거다. 최철영 집사는 출석하는 남가주사랑의교회의 회복과 부흥을 경험하여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기를 기도한다고 했다. 교회가 선교를 위한 건강한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너무 자명한 일이고, 모두가 기도해야 할 일이지만 평신도 지도자가 이런 기도를 품고 늘 기도한다고 하는 것이 고맙고 부러웠다.

그는 아울러 관계된 모든 사람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기도한다고 한다. 지나간 세월을 돌아보면 주변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지 못한 것이 가장 아쉬운 일이라는 것이 그의 고백이다. 그래서 그는 매일 이렇게 기도한다. "주여! 오늘 하루 동안에 만나

이웃들을 사랑하고 섬기게 하시며 그들 속에 있는 예수님을 보게 하옵소서!"

일상의 삶에서 만나는 이웃들 속에서 예수님을 보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일 것이다.

함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최철영 집사는 하나님의 손에 인생을 맡김으로 평안을 누린다. 필요한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채우심을 경험하기에 그는 담대하게 헌신한다. 물론 규모없이 낭비하는 삶은 아니다. 그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드림에 있어서 망설임이 없다. 하나님의 채우심을 확인하는 성도의 삶은 멋진 삶이다.

최철영 집사는 삶의 모든 경험을 영적 성장에 활용하는 사람이다. 이삿집을 나르다 만난 목사님의 설교 테이프를 주님을 만나고, 자동차를 다루는 사업 경험으로 교회 차량부를 섬긴다. 건강한 성도의 삶은 버릴 것이 없는 삶이다. 천국에는 쓰레기통이 없다고 하지 않는가? 최철영 집사의 삶이 그렇다. 지나온 날들이 버릴 것이 없다면 앞으로의 삶에도 버릴 것이 없을 것이다. 함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인생을 맡기는 믿음의 향기가 진동하는 만남이었다.

강태광 편집위원

Since 1999
www.e-nca.org

LA 학부모님, 아직도 학군 따라 이사가십니까?

여름학교 모집

6/4 - 7/27

무료 앱 다운로드

LA 한인타운에는 킨더에서 초중고까지 갖춘 명문사립 NCA가 있습니다!

- 졸업생 평균 GPA 4.34 및 SAT 평균 1,390점 기록 (전미주 평균 1,060점)
- 지난 19년간 전 졸업생이 UC 계열과 유수의 명문대학에 진학
- LA에서 유일하게 국제학사(IB) 및 AP 프로그램 동시 실행
- 새 학기 보충수업 위주의 썸머스쿨 운영 (필드트립 등 다양한 액티비티 제공)
- 편리한 교내 애프터스쿨 프로그램 운영
- 미주 최초 한인인 설립한 비영리 기독교 사립학교로서 영성 함양

NCA 사립 초중고등학교
NEW COVENANT ACADEMY
 3119 W. 6th Street, Los Angeles, CA 90020

명문대 입학은 킨더부터 시작됩니다!
K-9th 모집

입학 문의 (213) 487-54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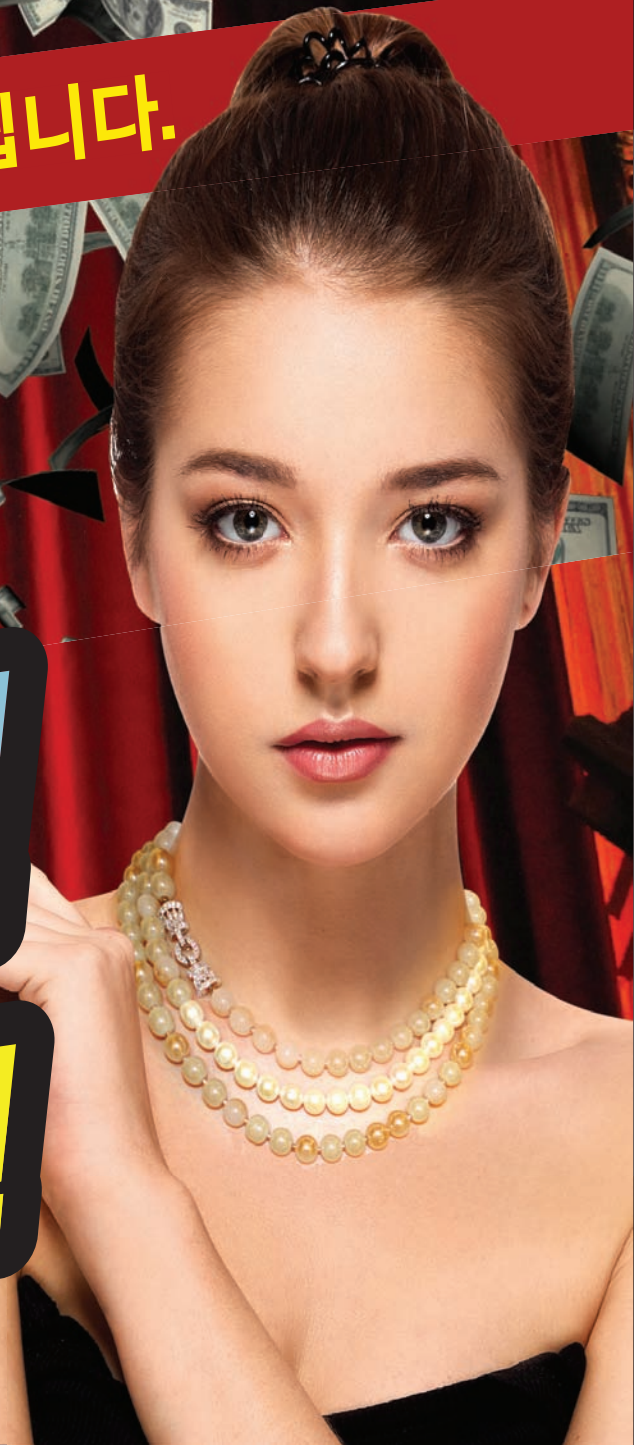
NCA 킨더가든 모집

명문대 입학은 킨더부터 시작됩니다!

Kobe Pearl LAS VEGAS CURTAIN CALL SALE

고베펄에 주신 그동안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고베펄 폐업정리! 묻지마세일!!



고객 여러분들께 알려드립니다.

지난 15년간 진주전문 고베펄사를 성원해주신 고객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베펄사는 최근 몇년동안 불경기 여파로 많은 어려움을 겪게되면서 이번에 부득이하게 폐업정리를 단행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오는 9월 부터는 HELEN AIKO JEWELRY 라는 이름으로 진주목걸이에도 혁신적인 아트 요소가 가미된 프리미엄 제품 만을 엄선해 시판하게 되는 GIA 명품라인을 구성해 전국에 선보이게 됩니다. 이에따라 기존의 고베펄 비드 목걸이 서비스 등은 차질없이 HELEN AIKO JEWELRY에서 맡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와함께 현재까지 시판하고 있던 1만여점의 진주보석 등은 29일부터 시작하는 묻지마 가격으로 폐업 총정리를 하게 됩니다. 많은 성원 바랍니다.



진주목걸이 등 1만여점 묻지마 폐업정리!
**믿을수없는
파격세일**

고베펄 바로크 컬렉션 CLEARANCE 파격세일!

가든그로브 일정
2018년 5월 4일(금) - 8일(화), 단 5일간
장소:인디안 아울렛(아리랑 마켓 물 내)
9618 Garden Grove Bl Garden Grove CA 92844

엘에이 행사 일정
2018년 5월 9일(수) - 11일(금), 단 3일간
로텍스 호텔 2층 연회장
3411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19

부에나파크 행사 일정
2018년 5월 12일(토) - 13일(일), 단 2일간
홀리데이 인 특설매장 Garden 1 룸
7000 Beach Blvd, Buena Park, CA 90620

* 영업시간은 오전 10시부터 ~ 8시까지 영업합니다. 각종 신용카드 환영합니다.

